



전국 16개 FTA 활용지원센터

지역별 FTA 지원 정보를 보다 손쉽게 얻으세요

「FTA 정보 제공」에서
애로 해소 까지,
One-Stop 지원!



지역 FTA 활용지원센터 연락처	
경기 031-259-7204	전북 063-711-2
경기(북부) 031-259-7204	전남 061-282-4
인천 032-810-2854	강원 033-256-1
대구 053-751-5765	충북 043-229-1
부산 051-990-7082	충남 041-539-4
울산 052-287-3060	경북 054-454-1
광주 062-350-5864	경남 055-210-1
대전 042-480-3042	제주 064-757-1



함께하는 FTA | FTA월간지 | vol.3

함께하는 **FTA**

한·중남미 FTA 자원 대국과 ‘FTA 허브’의 꿈 일군다

성공 사례로 보는 FTA 100% 활용 노하우



1998년,

한국은 경제 패러다임의 전환을 위해 FTA라는 소중한 씨앗을 심었습니다.

1998년 11월 대외경제조정위원회에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추진하기로 하고, 첫 대상국으로 칠레를 선정



FTA



2012년,

그 씨앗이 자라 우리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2012년 7월 현재 한국은 8개 국가·경제공동체와 FTA 유효, 2개국과 FTA 협상 타결, 7개 국가·경제공동체와 FTA 협상 중

여름철 전기절약 행동요령

우리집 전기절약 체크리스트



평상시 필수사항



에어컨 등 전기냉방기기의 사용은 자제합니다.

✓
체크



사용시간 외 TV, 컴퓨터, 충전기 등의 플러그는 뽑습니다.

✓
체크



실내온도는 26°C 이상으로 유지합니다.

✓
체크



사용하지 않는 곳의 조명은 완전 소등합니다.

✓
체크



여름철 전력피크시간대 (오후 2 ~ 5시)에는 전기사용을 최대한 자제합니다.

✓
체크



비상시 대응요령

⚡ 전기냉방기기의 사용을 중지합니다.

⚡ 다리미, 청소기, 세탁기, 전자렌지, 식기세척기, 헤어드라이기의 사용을 중지합니다.

⚡ 재난상황파악을 위한 TV, 라디오를 제외한 가전기기의 사용을 중지합니다.

⚡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각 방의 조명등을 모두 끕니다.



평상시 권장사항



실내냉방기기 온도는 한 단계 낮게 (강▶약) 설정합니다.

✓
체크



세탁기는 한 번에 모아서 사용합니다.

✓
체크



식기세척기는 가득 찰 때만 사용합니다.

✓
체크



전기밥솥 대신 압력솥을 이용 합니다. (전력사용▶가스사용)

✓
체크



전기밥솥은 장시간 보온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
체크



TV · 컴퓨터 사용시간을 줄이고, 반드시 셋톱박스의 전원을 끕니다.

✓
체크



컴퓨터는 절전모드를 설정하여 사용합니다.

✓
체크



청소기는 한 단계 낮게 (강▶중) 조절하여 사용합니다.

✓
체크



냉장고의 음식물은 60%만 넣어 냉기순환이 잘되게 합니다.

✓
체크



냉장고는 벽과 거리를 두고, 뒷면 방열판을 주기적으로 청소합니다.

✓
체크



인원수에 적합한 용량 및 1등급 가전제품을 구입합니다.

✓
체크



백열등은 형광등, LED조명 등 고효율조명으로 교체합니다.

✓
체크

CONTENTS

www.ftahub.go.kr
2013 August vol.3



인트로 칼럼

- 04 21세기 한·중남미의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
중남미 손 잡고 대서양까지 경제 영토 넓히자

커버 스토리

한·중남미 FTA 자원 대국과 'FTA 허브'의 꿈 일군다

- 06 한·콜롬비아 FTA 체결의 중요성과 기대 효과
중남미 공략 교두보 확보… 양국간 '윈·윈'
- 08 한·페루 FTA 발효 1년 성과와 전망
곳곳에서 효과 '제감'… 중장기적 혜택 클 듯
- 10 한·칠레 FTA 8년의 성과와 미래
자원·에너지·문화 분야 교류 심화·확대한다
- 12 주영섭 관세청장
한·미 FTA 가시적 '결실'…지원 확대할 것



〈함께하는 FTA〉 발행일 2012년 8월 2일(통권 3호) 발행 기획재정부 무역협정국내대책본부 발행인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제작협력 한국경제매거진 〈함께하는 FTA〉에 수록된 내용은 저자의 견해로 정부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10



34



36

뷰 파인더

- 14** FTA 활용 성공사례 FTA 애로 해결사…‘찾아가는 서비스’ 인기
16 FTA 활용 지원제도 중소기업 돋는 무료 컨설팅, ‘FTA 닥터 컨설팅’
17 FTA 생생 취재 FTA 활용 중소기업 성공사례 경진대회
18 강소농 천하 팽이버섯 수출 ‘한국버섯수출사업단(KMC)’
19 중소기업 천하 한식 포장제품 전문업체 ‘사옹원’
20 FTA 물가지수 FTA 주요 품목 소비자 가격 동향
21 글로벌 생생 통신 캐나다 투자 활성화, 자원 개발 확대 등 기대감 높아져
22 농식품 수출 ‘식품 한류’로 경제 위기 극복한다
- 23** 행복한 동행 하늘로 비상하는 아름다운 백조

카툰**스페셜 리포트****한·미/한·중 FTA, 성과와 비전**

- 24** 한·중 FTA 현황과 진단
 커지는 중국 내수 시장, FTA로 선점하자
26 한·미 FTA 주요 성과
 한·미 FTA 발효 후, 한국 제품 미국 시장 점유율 상승
28 한·미 FTA로 열리는 미국 조달시장
 문턱 낮아지고 기회 넓어져… 중소기업들 ‘기대’

에듀 플러스

- 30** FTA 스쿨 알기 쉬운 ‘원산지증명의 모든 것’
32 Ⓛ 푸드 맛으로 즐기는 ‘FTA 라이프’
34 Ⓛ 트레블 여름 바캉스에 딱! 매력 가득 FTA 관광지
36 Ⓛ 아트 한국 뮤지컬, 세계를 유혹하다

이슈와 토픽
별별 랭킹

- 38** FTA 뉴스
40 누가 누가 잘했나 올 상반기 FTA 체결국 와인 판매 랭킹 7

한·EU FTA로 선인장 ‘수출 대박’ “FTA, 정말 든든한 효자입니다”

“

FTA 효과는 대단했습니다.
원래 선인장은 겨울에
주문이 없어 9월이면 주문이
끝나는데, 지난해 10~12월에
25만 달러치의 추가 주문이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수요가
정말 ‘폭발’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 고양시 화훼단지에서 관상용 선인장을 길러 수출하는 농부입니다. 저희 선인장에 대해 잘 모르실테지요. 사실 선인장은 한국이 해외에 최초로 수출한 화훼입니다. 벌써 33년 전인 1979년부터 수출이 시작됐지요. 저는 20년 전부터 선인장을 기르고 있습니다. 일찍부터 수출을 시작해 지금은 10여 농가의 선인장까지 수출을 도맡고 있습니다. 네덜란드를 비롯해 미국·캐나다·일본·중동·이스라엘·아프리카 등 27개국으로 지난해 250만 달러 이상을 수출했습니다.

지난해 8월이었습니다. 월 2회 선적이 이뤄지는 선인장을 보내놓고 있었는데, 갑자기 네덜란드 수입상이 원산지증명서를 보내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린가’ 알아봤더니 지난해 7월 1일 한·EU FTA가 발효되면서 선인장 관세 8.3%가 없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수입상의 선인장 도매 마진은 5%인데 관세가 없어진다면 굉장히 추가 마진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떠난 배가 도착하기까지 남은 시간은 열흘, 그 안으로 증명서를 보내라고 재촉하더군요.

고민이 시작됐습니다. 농사만 짓던 사람이 생전 듣도 보도 못한 수많은 서류를 어떻게 만들까 생각하니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마침 서울세관에 연락이 돼서 컨설팅이 시작됐습니다. 경기도농업기술원 선인장연구소에서 종자가 한국에서 생산된 것임을 확인해줬고, 고양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외국 종자의 인공재배를 인증해줬습니다. 이렇게 해서 수출인증자격을 취득하고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했습니다.

FTA 효과는 대단했습니다. 원래 선인장은 겨울에 주문이 없어 9월이면 주문이 끝나는데, 지난해 10~12월에 25만 달러치의 추가 주문이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수요가 정말 ‘폭발’했습니다. 올해는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재배면적 늘리기에 집중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함께 농사를 짓는 다른 농가들도 월동시설 보강사업을 진행해 내년에는 저희 수출 물량이 지금보다 40~50%는 늘어날 걸로 예상됩니다. 어떻습니까. FTA가 정말 든든한 효자이지 않습니까? 

정리 우종국 기자 사진 서병세 기자



김건중 고덕원예무역 대표



21세기 한·중남미의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

중남미 손 잡고 대서양까지 경제 영토 넓히자

글 하상섭 한국외국어대학교 한·중남미 녹색융합센터 교수

현재의 우리나라
대(對) 중남미
FTA 방향은
태평양 시대를
주도하면서, 미래
대서양 지역으로
무역영토를
확대하는 큰
전략이 요구된다.



천연자원의 보고 중남미, 미래 잠재시장으로 부상

21세기 들어 중남미 경제는 성장과 발전을 거듭해 오고 있다. 1980년대 초반 이후 민주화와 더불어 중남미 국가들은 정치적으로 안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대외경제 취약성이라는 구조적 문제들도 해결해 가면서 경제적으로 크게 발전하고 있고 동시에 거시경제의 안정성도 달성되었다. 중남미 각국 정부들은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산업구조의 개편, 자원개발 능력 확충, 재정 건전성 확보 등에 집중하고 있으며 다양한 사회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중남미 국가들의 교역도 다변화하여 전통적 교역국인 유럽이나 미국 등 서방 국가들과의 교역 비중이 줄어들고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과의 교역 비중이 확대되는 양상이 나타나

고 있다. 32억 명의 인구를 가진 아시아 국가들은 연간 14조 달러에 이르는 국내총생산(GDP)을 기록 중이고 이는 인구 6억 명을 가진 중남미 입장에서는 교역 다변화뿐만 아니라 미래 잠재 시장으로서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아시아와 중남미의 경제적 보완 관계가 증대하는 가운데 중남미 지역에서 아시아 국가들(특히 중국, 일본, 한국) 간 치열한 경쟁이 나타나고 있다. 중남미라는 거대 시장에 효과적으로 진출하고 중남미와 더 높은 차원의 경제 협력을 달성하는 것이 우리나라 입장에서 매우 중차대한 사안으로 등장해 있다.

중남미는 이미 역동적인 시장과 풍부한 천연자원, 높은 인프라 개발 수요 등 경제 잠재력이 큰 지역으로 부상했다. 세계 석유 매장량의 10.6%, 동 43.8%, 은 39%, 철 26.3%가 매장돼 있

는 등 천연 자원의 보고로 우리나라라는 현재 중남미에 금광, 철광석 및 동광개발, 석유 및 천연가스 분야를 포함해서 재생에너지 산업 관련 개발에 투자는 물론이고, 섬유, 화학제품, 핸드폰, 모니터, 가전제품, 자동차 및 부품 등을 수출하고 있다.

2010년대 들어 위와 같은 분야들에서 한국과 중남미 지역 간의 교역규모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한국의 경우, 2011년 브라질에 118억 달러, 멕시코에 97억 달러, 칠레에 23억 달러를 수출했고 상당한 무역 흑자를 기록했다.

한·중남미 'FTA 벨트' 구축

우리나라의 대중남미 지역과의 현재 FTA 체결은 지정학적으로 중남미 대륙에서 태평양연안 국가들과의 자유무역협정이라는 사실이 두드러진다. 현재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한 칠레(2004년 4월), 페루(2011년 8월), 콜롬비아(2012년 6월)를 포함해 향후 FTA 체결을 논의 중인 멕시코, 파나마 등은 외교적 차원에서 미국 오바마 정권이 추진 중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포함된 국가들이다. TPP와 맥을 같이 하면서 중남미 역내의 '태평양동맹협정(멕시코, 칠레, 콜롬비아, 페루 등 중남미 4개국, 코스타리카와 파나마 옵서버)' 국가들과 우리나라를 전략적으로 FTA를 맺어 가고 있다. 일종의 중남미 태평양 연안 국가들과 'FTA 벨트'를 만들어 가고 있는 중이다.

태평양동맹협정 국가들의 면면을 보면 경제적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다. 태평양동맹협정 지역 인구는 2억1,500만 명에 달하며(중남미 전체 6억 명), 국내총생산 GDP는 중남미 전체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2조2,000억 달러에 달한다. 태평양 연안 국가들이라는 지정학적 한계를 보이지만 규모는 점차 확대 국면에 있다. 특히 광물 및 자원 분야와 한국 상품 및 자본 투자에서 미래 잠재 시장으로서 중요하며 향후 메르코수르나 대서양 연안 국가들로의 진출에서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는 국가들이다.

2012년 6월에 맺은 콜롬비아와의 FTA의 경우, 콜롬비아는 중남미 3위 시장으로 잠재력이 크고 공산품과 농산품·천연자원을 서로 수출하는 형태의 보완적 교역구조라는 점에서 FTA의 긍정적 효과는 기대된다. 특히 콜롬비아는 이미 미국과 FTA를 맺고 있고 유럽연합(EU) 및 이웃국인 페루와의 FTA가 발효될 예정이어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가장 큰 무역창출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지정학적으로도 콜롬비아는 이전 콜롬비아 독립의 아버지라 불리는 '시몬 볼리바르(Simon Bolivar)'가 주장했듯이 '미주 대륙 남-북을 관통하면서 대서양과 태평양을 연결하는 중요 교

한·중남미 주요국 간 교역 현황

(단위: 억 달러, 2011년 기준)

국가	교역 규모		
	전체	수출	수입
브라질	181.6	118.2	63.4
멕시코	120.3	97.2	23.1
칠레	72.4	23.8	48.6
페루	33.3	13.7	19.6
아르헨티나	21.3	10.8	10.5
콜롬비아	19.9	16.1	3.8
에콰도르	9.1	8.8	0.3

※자료: 외교통상부, 무역협회, IMF

차로'로서 역할을 하고 있어서 더욱 중요하다. 칠레를 포함해서 페루와 콜롬비아는 중남미 국가들 중에 신흥경제 대국들로 등장하고 있다는 점과 미국의 외교적 전략 그리고 이들 국가들의 아시아 진출에 대한 기대와 교역 다변화 전략 등이 맞물리면서 바야흐로 태평양 FTA 벨트를 통한 새로운 환태평양 시대가 열리고 있다.

교역 규모 큰 멕시코, 브라질과도 FTA 필요

여전히 중남미 지역을 대표하는 국가들은 멕시코, 브라질, 아르헨티나이다. 위의 표에서 보듯이 한국의 무역에서 많은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국가들은 브라질과 멕시코이다. 특히 멕시코의 경우 이미 우리나라와 경쟁 관계에 있는 일본과 FTA를 맺고 있다. 상품과 자본의 이동이 자유로운 관계에서 우리나라의 경쟁력은 많이 떨어진다.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등 대서양 국가들이 1990년대 초반부터 추진해 온 남미공동시장 혹은 'UNASUR(하나의 남미)' 블록은 기존의 인력과 상품 및 서비스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에 더해서 남미지역 에너지 및 인프라 통합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남미에서 진행 중인 자원과 에너지 인프라 통합을 위한 투자나 규모의 경제 측면에서 보면 태평양 연안 국가들을 압도 한다. 일본과 중국은 이미 남미지역이 가지고 있는 자원과 시장 확보를 위해 다양한 투자와 교역관계를 강화해 오고 있고 남미 공동시장과의 FTA를 추진해 오고 있다.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를 포함하는 남미지역은 우리나라의 수출량과 교역관계, 수출 국가 다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태평양 연안 국가들 만큼 이들 대서양 연안 국가들과의 FTA도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하다. 따라서, 현재의 우리나라 대중남미 FTA 방향은 태평양 시대를 주도하면서, 미래 대서양 지역으로 무역영토를 확대하는 큰 전략이 요구된다. 



한·콜롬비아 FTA 체결의 중요성과 기대 효과

중남미 공략 교두보 확보... 양국간 '원·원'

우리나라와 콜롬비아 간 FTA가 타결돼 발효를 앞두고 있다. 특히 한국·콜롬비아 FTA는 양국의 교역형태가 상호보완적인 성격이 강해 주목된다. 또 앞으로 세계 경제의 또 다른 성장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는 중남미 시장에 우리나라가 확실한 교두보를 확보한 데서 큰 의미를 가진다. 글 이홍표 기자 사진 한국경제신문



이명박 대통령과 후안 마누엘 산토스 대통령이 박수치는 가운데 6월 25일(현지시각) 보고타 대통령궁에서 열린 한·콜롬비아 FTA 타결 선언문 서명식에서 박태호 통상교섭본부장과 세르히오 디아스 그라나도스 통상산업관광장관이 서명 후 악수하고 있다.

지난 6월 25일 박태호 통상교섭본부장과 세르히오 디아스 그라나도스 콜롬비아 통상산업부 장관은 콜롬비아 보고타에서 열린 통상장관회담을 통해 양국 간 FTA가 타결됐음을 발표했다. 2009년 12월에 협상을 시작해 2년 6개월 만의 일이다.

한·콜롬비아 FTA 타결 발표는 콜롬비아를 비롯해 중남미 4개국을 국빈 방문한 이명박 대통령과 후안 마누엘 산토스 콜롬비아 대통령의 입회하에 진행돼 교역 확대는 물론 양국 간의 우호 증진에 큰 전환점이 됐다.

중남미 유일 6·25 참전국... 6월 25일 FTA 타결

올해로 수교 50주년을 맞은 콜롬비아는 미국·터키 등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와 피로 맺어진 '혈맹국'이다. 콜롬비아는 중남미에서 유일한 6·25 전쟁 참전 국가로 자유민주주의와 평화 수호를 위해 4,314명을 파병해 214명이 전사했고 438명이 부상당했다.

또 콜롬비아는 우리나라와 이미 작년 9월 외교상 최고 단계의 관계인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맺은 우방으로 FTA를 통

해 경제부문에서도 한국 경제의 든든한 우군이 될 수 있는 확실한 면모를 가지고 있는 나라다.

콜롬비아가 위치한 중남미는 최근 10여년 간 정치적 안정, 거대한 소비 인구, 풍부한 지하자원을 기반으로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중남미가 세계경제의 새로운 성장 엔진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우리나라가 무역 2조 달러를 하루라도 빨리 달성하기 위해서는 중남미 시장 진출 확대가 동반되어야 할

한·콜롬비아 교역 현황

(단위: 백만 달러)

연도	수출	증가율	수입	증가율	무역수지
2007	1,121	22.8%	116	-43.4%	1,004
2008	1,091	-2.7%	143	23.3%	947
2009	797	-26.9%	125	-12.9%	672
2010	1,389	74.2%	432	245.9%	956
2011	1,614	16.2%	380	-12.1%	1,234
2012.5	684	2.3%	120	-46.5%	564

자료: 무역협회

것으로 분석된다.

중남미 중에서도 콜롬비아는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시장이다. 콜롬비아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도 연 5%가량씩 성장 중이다. 유럽 발 재정위기를 겪었던 지난해 역시 5.9%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했다. 때문에 콜롬비아는 영국의 유력 경제지인 이코노미스트가 선정한 주요 신흥시장국 '시베트(CIVETS)'의 맨 첫글자를 장식하기도 했다. 시베트란 콜롬비아·인도네시아·베트남·이집트·터키·남아공 등을 일컫는 말이다.

인구 4,600만 명의 중남미 3위 소비시장

콜롬비아 경제 발전의 원동력으로 글로벌 전문가들은 '탄탄한 내수시장'을 꼽고 있다. 콜롬비아는 인구 4,600만의 중남미 3위 소비시장이다. 중남미의 인구는 현재 5억8,000만 명으로 2017년에는 6억 명에 달할 것으로 보이는 거대 시장이며, 경제성장에 따른 중산층의 증가도 두드러진다.

아울러 콜롬비아는 중남미의 유망 산유국이자 광물자원 부국이다. 이에 따라 에너지·자원 분야를 중심으로 이미 우리 기업들도 대 콜롬비아 투자를 꾸준히 늘려가고 있는 중이다. 한국 기업들의 지사나 상사는 2010년 14개에서 2012년 28개로 두 배나 늘어났다. 또 콜롬비아의 지정학적 위치는 중미와 남미를 연결하는 지점에 있어 각 지역으로의 진출이 용이하다. 아울러 적극적인 FTA 정책을 펼치고 있어 중남미 FTA의 허브로 부상하고 있는 중이다. 콜롬비아는 이미 미국·페루·EU·캐나다·멕시코·에콰도르·볼리비아 등과 FTA를 맺고 있다.

이 가운데 우리나라는 아시아 국가로서는 처음으로 콜롬비아와 FTA를 체결하는 것이어서 FTA 효과를 톡톡히 볼 것으로 기대된다. 양국은 협정 발효 후 10년안에 교역품목 수 기준으로 한국은 96.1%, 콜롬비아는 96.7%에 대해 관세를 철폐키로 함께 따라 가격경쟁력이 높아지는 등 일본과 중국 등 아시아 지역 경쟁자들보다 유리한 입지를 점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콜롬비아 FTA가 발효되면 우리 기업들의 콜롬비아 시장 점유율은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업종별로는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산업의 수혜 폭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한국의 대 콜롬비아 최대 수출품인 승용차의 관세율은 무려 35%에 달했다. 또 각각 5~15%, 15%의 관세를 적용받는 자동차부품과 타이어도 대표적인 수혜대상 품목이다. 더욱 기대되는 점은 콜롬비아의 자동차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2011~2016년 사이 콜롬비아의 자동차 수요는 연평균 4.5~14.3%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한국의 주력산업인 석유화학 제품의 경쟁력도 강화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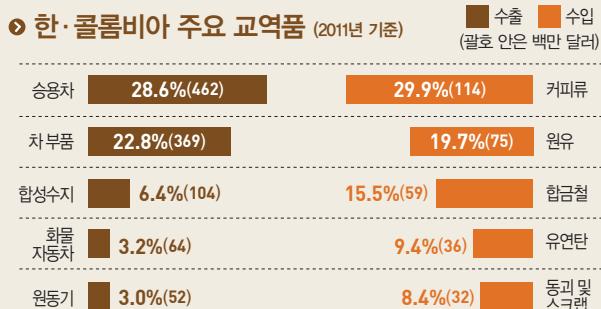
① 콜롬비아 국가 개요 (2010년 기준)



• 수도 보고타	• 인구 4,600만명
• 국토면적 114만km ²	• 언어 스페인어
• 정부형태 대통령중심제(임기4년·연임 허용)	
• 국내총생산(GDP) 2,726억 달러	
• 1인당 GDP 5,051달러	• 외환보유액 284억 달러
• 한국전 참전 현황 보병 1개 대대, 프리깃함 1척 파전 등 (4,314명 파전, 214명 전사)	

자료 : 외교통상부

② 한·콜롬비아 주요 교역품 (2011년 기준)



자료 : 한국무역협회

전망이다. 석유화학 대표 수출품인 합성수지의 경우 5~15%의 관세율을 적용받고 있다. 15~20%에 이르는 관세가 5년 안에 사라지는 섬유산업에도 호재다. 냉장고·세탁기·에어컨 등 가전제품의 수출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15~20%의 관세가 철폐될 예정이다.

콜롬비아와의 FTA가 더 큰 의미를 가지는 이유는 교역형태가 상호보완적인 성격이 강하다는 점에 있다. 한국은 콜롬비아에 공산품을 주로 수출하고 콜롬비아는 한국에 농산물과 천연자원을 수출한다. 지난해의 경우 대 콜롬비아 최대 수입품은 커피(29.9%), 원유(19.7%), 합금철(15.5%), 유연탄(9.4%) 순이었다. FTA로 관세장벽이 없어지면 이들 자원을 보다 저렴하게 들여올 수 있어 국내 물가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커피는 즉시 또는 3년 안에 관세(2~8%)를 없애기로 해 국내 소비자들이 보다 저렴한 가격에 구매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양국의 교역이 보완적인 성격이 강하다 보니 부작용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농수산업의 피해는 미미할 것으로 전망된다. 양허 제외 품목을 대거 확보했기 때문이다. 쌀·고추·마늘·사과·감귤·명태 등 민감도가 높은 153개의 품목은 FTA 양허 대상에서 제외했다.



한·페루 FTA 발효 1년 성과와 전망

곳곳에서 효과 '체감'... 중장기적 혜택 클 듯

한·페루 FTA 발효 1주년 체감 효과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주요 수출품의 수출 증가 효과가 두드러지고 있고, 기업 간 혹은 기관 간 경제 협력도 적극 이뤄지고 있다. 향후 한·페루 FTA의 중장기적 혜택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직접적 효과와 더불어 중남미 지역 진출 확대를 위한 교두보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전망된다.

글 박진영 기자 사진 한국경제신문



남미의 자원부국 페루는 온 생산량이 세계 1위인 것을 비롯해 아연(2위), 주석(3위), 금(6위), 납(4위), 동(2위) 등 광물자원이 풍부하다(왼쪽). 올초 페루의 수도 리마에서 개최된 '삼성전자 중남미 포럼' 현장(오른쪽)

잉카문명의 발상지, 태양의 도시 마추픽추로 유명한 페루는 물리적 거리만큼 심리적 거리가 상당한 국가였다. 지난해 8월 1일 한·페루 FTA가 발효됐을 때만 해도 페루가 세계적인 에너지 자원국이라는 점, 기회의 땅으로 불리는 중남미 국가는 점 등이 부각돼 막연한 기대감이 커진 게 사실이다. 그러나 한·페루 FTA 발효 1주년을 맞은 지금, 곳곳에서 실질적인 체감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남미의 자원부국인 페루는 온 생산량이 세계 1위인 것을 비롯해, 아연(2위), 주석(3위), 금(6위), 납(4위), 동(2위) 등 광물자원 생산량이 세계적 수준으로, 양국 간 FTA가 발효되기 전에도 우리나라에는 페루로부터 많은 자원을 수입하는 구조였다. 매년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그러나 2012년 상반기 무역수지 적자폭이 감소세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수출 증가가 수입 증가를 상회하고 있다는 얘기다.

자동차 등 주요 수출 품목 효과 가시화

FTA 발효로 인한 수출 증가 효과가 두드러지는 품목은 예상대로 자동차였다. 올해 초 코트라와 페루자동차협회(AAP) 등에 따르면 지난해 페루시장에서의 자동차 판매는 14만4,000대

로, 그 중 한국차는 22.9%의 점유율을 보였다. 특히 현대·기아 자동차의 점유율이 22.5%에 달해, 17.6%에 그친 일본 도요타를 제치고 단일 기업 기준으로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에는 도요타가 21.1%의 점유율로 현대·기아차(20.6%)보다 앞섰던 점을 생각하면 FTA로 인한 효과적 측면이 크다. 휴대전화를 비롯한 각종 가전제품의 한국 제품 점유율이 갈수록 커지고 있고, 그 외에도 합성수지, 영상기기, 건설광

우리나라의 대 페루 주요 수출품 실적 현황

(단위: 천 달러, %)

품목명	2010년 수출액	2011년 수출액	증가율
자동차	372,233	499,776	34.3
합성수지	70,992	125,183	76.3
영상기기	6,038	108,268	1,693.0
공기조절기 및 냉난방기	11,077	70,943	540.4
건설광산기계	20,870	42,170	102.1
주단조품	1,924	37,895	1,869.4
섬유 및 화학기계	9,916	28,073	183.1
플라스틱 제품	10,330	17,513	69.5
정전(static electric) 기기	3,597	13,890	286.2
종이제품	7,307	13,569	85.7

자료 : 무역협회

산기계, 섬유 및 화학기계 등 주요 품목의 수출 실적이 대폭 증가하는 등 한·페루 FTA 효과가 가시화되고 있다. 양국의 기업 간, 혹은 기관 간의 MOU 체결도 늘어나는 등 적극적인 경제 협력도 이뤄지고 있다. 사실 양국 간 FTA의 효과는 지난해 발효 즉시 감지된 바 있다. FTA가 발효되자마자 한달 간 수출량이 전년 대비 무려 114% 증가한 반면, 수입은 49.5% 증가에 그쳤던 것. 이는 우리나라와 페루의 FTA는 공산품을 수출하고 원자재 등을 수입해오는 한국의 전형적인 무역형태로, 우리나라의 주된 수출품인 공산품의 가격 대체 효과가 커 상품 수출이 증가한 반면, 수입품은 광물 등 원자재가 대부분이라 수입규모 증가가 상대적으로 작은 데서 기인한다.

한국 기업의 자원 개발 참여 활발

지난 2004년 공식 발효한 한·칠레 FTA에 이어 중남미권과의 두 번째 FTA인 한·페루 FTA가 지난해 8월 발효되자, 국내에서는 ‘효과’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다. 이유는 크게 세 가지였다. 페루가 풍부한 자원국가라는 점, 연평균 성장률이 높아 수입시장이 성장 중이라는 점, 중남미 시장에서의 새로운 교두보를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이 그것이다.

페루는 세계 10위권에 들 정도로 광물자원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남미 7위의 천연가스 보유국이기도 하다. 더구나 아직까지 개발되지 않은 지역도 전 국토의 90%에 달해 자원개발 잠재력도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양국 간 FTA 발효 후 우리 기업의 자원개발 사업 참여가 보다 활발해질 것으로 관측한 데는 이러한 배경이 깔려있다. 이미 국내 일부 기업들이 자원개발을 위해 페루에 진출해 있는 가운데, 중장기적으로 자원개발을 위한 우리 기업들의 페루 진출이 활기를 띠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 대 아시아 수출 및 수입 규모가 크게 확대되며 성장 유망지역, 기회의 땅으로 불리는 중남미 주요 국가 중에서도 페루는 성장 속도가 빠르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에너지 및 광업 분야를 중심으로 한 적극적인 외국인투자유치정책에 힘입은 결과로 외국인 투자가 연간 23.5%씩 늘어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 국제 무역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2006~2010년 5년간 페루의 연평균 성장률(실질 기준)은 7.2%에 달해 중남미 주요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고, 이처럼 빠른 경제 성장에 걸맞게 수입 시장도 연간 19.1%씩 성장하고 있다. 우리의 대 페루 수출도 같은 기간 27.3%씩 증가했다. 그러나 이는 양국 간 FTA 발효 전으로, FTA 발효와 함께 관세 철폐 효과가 더해지면서 수혜 정도는 훨씬 더 클 수 밖에 없는 상황. 더구나 페루의 수입 품목 중 관세가 있는 품목만의 평균 세율이 11%로 관세 인하 효과가 매우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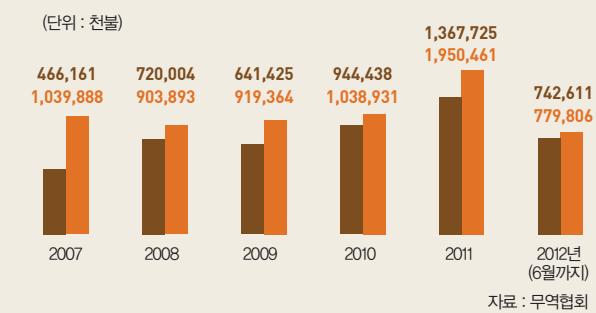
❶ 페루 국가 개요 (2010년 기준)



- 수도 리마
- 인구 2,920만명
- 국토면적 129만㎢
- 언어 스페인어
- 정부형태 대통령 중심제(임기 5년·연임 불가)
- 국내총생산(GDP) 1,565억 달러
- 1인당 GDP 5,350달러
- 외환보유액 441억 달러
- 최근 주요 정세 2011.7.28 좌파성향의 우말라 신정부 출범 (실용 좌파 정책 추진 표명해 한국과의 FTA 존중 입장)

자료 : 외교통상부

❷ 우리나라의 대 페루 수출입 규모



자료 : 무역협회

더욱 기대되는 것은 한·페루 FTA 발효 효과가 중장기적으로는 더욱 클 것이라는 전망이다. 우리의 대 페루 전략 수출품 가운데 중대형 자동차, 컬러TV, 일부 의약품, 인조섬유, 비디오, 카오디오 등에 대한 관세가 5년 이내에 모두 철폐돼 향후에도 지속적인 수출 증가세가 예상되고, 중소형 자동차, 부직포, 인쇄용지, 편직물, 냉장고, 엔진용 축전지 등은 관세가 10년 동안 철폐되지만 관세율이 최고 17%에 달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FTA로 인한 혜택 정도가 상당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또 의약품, 볼트, 철강선, 잉크, 합성수지, 기어 등은 현재 대 페루 수출 실적이 미미한 수준이지만 페루의 수입 수요가 적지 않은 품목임을 감안했을 때 9~17%의 높은 관세 철폐 효과가 더해지면 국내 중소기업들에게도 페루 시장 진출의 기회가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

한·페루 FTA는 그 직접적 효과도 효과지만, 한·칠레 FTA와 함께 우리나라의 남미지역 진출 확대를 위한 교두보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례로 지난 6월 협상 타결돼 올해 중에 발효 예정인 한·콜롬비아 FTA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은 물론, 브라질이 반대하고 있는 MERCOSUR(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 등 남미공동시장)와의 FTA를 자극하는 데도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페루가 이미 체결한 FTA 대상국으로의 우회 수출도 가능해졌다. ❸



Chile

한·칠레 FTA 8년의 성과와 미래

자원·에너지·문화 분야 교류 심화·확대한다

한·칠레 FTA는 'FTA의 모범'으로 불린다. 지난 2004년 한국은 남미의 자원부국 칠레와 FTA를 전격 체결함으로써 'FTA 시대'에 첫발을 내디뎠다. 칠레는 한국과 상호보완적인 산업구조를 갖고 있는데다 지리적으로 지구 반대편에 떨어져있어 가장 이상적인 FTA 파트너로 꼽혔다. 글 정승규 기자 사진 한국경제신문

지난 6월22일 산티아고 대통령궁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세巴斯띠안 피녜라 칠레 대통령은 한·칠레 FTA가 두 나라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했다는 데 인식을 함께 했다. 이와 함께 양국 정상은 한·칠레 FTA 성과를 바탕으로 신재생에너지와 환경, 광물자원 개발, 인트라, 교육 및 문화 교류, 남극연구 등 보다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을 심화, 확대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칠레는 중남미의 대표적인 경제 강국 중 하나다. 2011년 기준으로 경제 규모로는 중남미에서 브라질, 멕시코,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베네수엘라에 이어 6위를 기록했다. 하지만 칠레 인구가 약 1,700만 명에 불과한 것으로 고려하면 중남미 최고 수준의 경제 강국이라고 할 수 있다.



이명박 대통령과 세巴斯띠안 피녜라 칠레 대통령이 6월 22일 산티아고 대통령궁에서 한·칠레 확대 정상회담을 열고 있다.

FTA 체결 후 교역량 4.6배 증가

2011년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1만4,412달러를 기록했다. 구매력 기준으로 따지면 1만6,929달러로 중남미에서 아르헨티나(1만7,376달러)에 이어 2위다. 또한 칠레 경제는 2004년에서 2011년까지 연평균 4.8%의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2004년 한·칠레 FTA 발효 이후 양국간 수출과 수입은 큰 폭으로 증가했다. 2003년 5억1,700만 달러에 불과했던 대 칠레 수출액은 2011년 23억8,000만 달러로 4.6배 뛰었다. 대 칠레 수입액도 2003년 10억5,800만 달러에서 48억6,000만 달러로 4배 이상 증가했다.

한국이 칠레에 주로 수출한 것은 자동차와 합성수지, 석유제품, 철강판, 무선통신기기 등이다. 이들 5대 품목

이 전체 수출의 69.8%를 차지했다. 반면 한국은 칠레에서는 동제품과 동광을 수입했다. 두 품목의 수입 비중이 무려 75.5%에 달한다. 당초 우려했던 농림축산물은 전체 수입의 8%에도 미치지 못했다. 칠레 수입시장에서 한국산 점유율은 2010년 현재 6.41%로 2003년 2.98%에 견줘 2배 이상 높아졌다.

FTA는 양국 교역 증대의 지렛대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한국의 대 칠레 수출 업체수는 한·칠레 FTA 발효 전인 2003년 873개에서 2010년 1,249개로 43.1% 늘어났고, 수입업체수는 2003년 235개에서 2010년 426개로 144.3% 증가했다. 한·칠레 FTA는 생산과 고용 유발효과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협정 발효 전과 견줘 대칠레 수출에 의한 생산유발은 4.6배, 부가가치는 3.3배, 취업 유발인원은 3.7배 증가했다. 특히 취업 유발인원은 2003년 6041명에서 2010년 2만2344명으로 크게 뛰었다.

칠레는 53개국과 연결된 'FTA 허브'…이용 가능성 커

칠레는 'FTA 허브'로 불린다. 한국을 포함해 세계 53개 나라와 FTA를 체결하고 있다. 지난 1996년 캐나다와 처음 FTA를 맺은 이후 1998년 멕시코, 1999년 코스타리카 등 중미 5개국, 2002년 유럽연합(EU) 27개국, 2003년 미국 등 세계 각국과 전방위적으로 FTA를 체결해 왔다. 이는 한·칠레 FTA를 잘 활용하면 칠레가 FTA를 맺은 멕시코·미국·EU 등 여러 나라에서 무관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칠레의 탄탄한 경제도 큰 매력이다. 칠레는 2010년 남미 최초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한 나라다. 1인당 GDP가 중남미 최고 수준으로 구매력을 갖춘 소비자들도 적지 않다.

정부는 이러한 한·칠레 FTA 성과를 바탕으로 양국 관계의 심화, 발전을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자원 부국인 칠레와의 자원과 에너지 분야 협력 강화다. 칠레는 세계 1위의 구리 생산국(점유율 29.6%)이다. 연간 수출액의 절반 이상이 구리 판매에서 나온다. 이차전지에 주로 쓰이는 리튬(점유율 75.8%)과 레늄, 은, 요오드 등도 세계 최대 매장량을 자랑한다.

지난 6월22일 이명박 대통령의 공식 방문에 맞춰 두 나라는 자원 개발사업의 공동 발굴과 프로젝트 정보공유 및 기술교류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칠레는 리튬자원 개발사업 추진현황과 개발 프로젝트를 공개하고 한국 정부와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한국은 현재 산토도밍고와 까마로네스 동 개발 사업과 엔엑스우노 리튬 개발 사업에 2억2,300만 달러를 투자하고 있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해양에너지 발전과 그린에너지 공동 연구개발(R&D)에 협력하기로 했다.

❶ 칠레 국가 개요 (2010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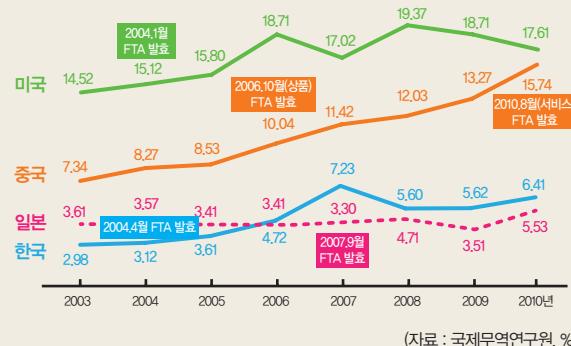
- 수도 산티아고
- 인구 1,710만명
- 국토면적 76만km²
- 언어 스페인어
- 정부형태 대통령중심제(임기 4년·연임 금지)
- 국내총생산(GDP) 1,950억 달러
- 1인당 GDP 1만1,428달러
- 경제성장을 5.3%
- 자원 현황 구리(세계 1위), 몰리브덴, 금, 은, 망간, 아연 등 금속광물 주요 생산

자료 : 외교통상부

❷ 한·칠레 FTA 발효이후 무역추이 (단위 : 달러)



❸ 칠레 수입시장의 주요국별 점유율 추이



문화 분야의 교류 및 협력 강화도 기대된다. 현재 칠레에서는 한류 바람이 거세다. 최근 그룹 JYJ 멤버 김준수의 솔로곡 '타란탈레그라'가 칠레 인기방송채널인 ETC-TV 팝차트에서 1위에 등극했다. 한국 가수가 칠레 음악 차트 1위를 차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칠레의 수도 산티아고 거리에서는 한류 가수들의 음악을 사용한 휴대전화 벨소리를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다.



주영섭 관세청장

한·미 FTA 가시적 '결실'… 지원 확대할 것

한국이 각국과 FTA를 체결하면서 가장 변화하고 있는 곳이 관세청이다. FTA의 효과는 관세 인하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 관세 전문 기관인 관세청의 역할과 기능은 변화를 요구받을 수밖에 없었다. 특히 규제 위주의 행정기관에서 서비스기관으로 체질 자체가 변화하면서 주영섭 관세청장은 누구보다 분주한 날들을 보내고 있다.

글 우종국 기자

각국과의 FTA 발효가 본격화되면서 관세청의 역할에는 어떤 변화가 생겼습니까?

주요 경제권·국가와의 FTA 확대로 관세행정의 틀이 크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과거 관세행정은 세금을 징수하고 밀수를 적발하는 등 규제 위주의 행정이었으나 FTA 시대를 맞아 기업이 FTA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기관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관세청은 FTA의 최종집행을 책임지고 있는 기관으로서 우리 수출기업이 FTA를 활용해 수출을 증대시키고 세계 시장으로 뻗어나가도록 법적·제도적 시스템 정비와 함께 기업 원산지 관리능력 배양, FTA 컨설팅을 통해 FTA 활용도 제고, 통관애로사항 해결 등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더불어 국내 취약 산업 보호를 위해 농수산물 등 FTA를 약용할 우려가 높은 품목에 대한 전략적 차단과 함께 제3국 물품의 무관세 우회수입 차단에 적극 나설 예정입니다.

“**한국이 FTA를 추진하는 이유는 가격 경쟁력을 통해 수출이 늘어나면 그것이 경제성장으로 이어지고 다시 일자리가 창출되는 선순환 경제 구조를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최근 FTA 활용 성공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사의 내용과 성과는 무엇인지요?

7월 24일 코엑스에서 중소기업 임직원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FTA 활용 중소기업 성공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대회는 3월 15일 한·미 FTA 발효 이후 중소기업의 FTA 활용 성공사례를 발굴·전파함으로써 FTA에 대한 우리 중소기업의 관심을 유도하고 그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행사에서는 FTA 활용을 통해 수출시장을 확대한 중소기업의 생생한 현장사례, 참신하고 기발한 아이디어를 FTA에 접목한 대학생 공모 수상작, 기업의 FTA 애로 해결사례 등이 발표됐습니다.

중소기업의 FTA 활용을 위한 관세청의 지원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요

관세청에서는 우리 수출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FTA를 통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혜택을 받으려면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 전국 세관에서 '1 대 1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FTA를 활용하지 못하는 이유 등을 분석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을 직접 방문해 문제를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FTA를 적용받는데 가장 필수적인 것이 원산지 증명인데, 중소기업의 경우 자본·인력이 부족해 자체 원산지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간편하게 원산지를 관리할 수 있도록 관세청이 'FTA-PASS'라는 원산지 관리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무료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한·미 FTA 발효 의의와 그간의 성과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한·미 FTA를 통해 미국과의 교역·투자·인적 교류가 활성화됨에 따라 우리 경제·사회 시스템이 전반적으로 선진화되는 효과도 거둘 수 있습니다. 한·미 FTA 발효 3개월이 지나 거래선 변경 등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기업들의 FTA 활용에 대한 실질적인 준비가 완료되어 간다고 판단되며 향후 시간이 흐를수록 교역 규모, 수출 규모는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FTA를 활용하기 위해 중국 등 해외에 구축한 생산기지가 국내로 돌아오거나 계획하고 있는 U-Turn 기업도 늘어나는 등 긍정적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FTA 발효에 따른 국내 취약산업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관세청은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계십니까?

정부의 보완대책을 살펴보면 FTA에 따른 농축산물 피해보전

직불제 발동요건을 완화하고, 시설현대화지원학대와 함께 수리 배수시설 등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관세행정 측면에서도 제 3국 물품의 우회수입 우려가 큰 농축산물을 중점 감시 대상으로 지정하여, 수입 통관 시부터 집중 감시·관리함으로써 FTA에 따른 농축산농가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한국은 여러 나라와 FTA를 체결하고 있는데, 각국과의 FTA 체결 의의는 무엇입니까?

전 세계적으로 1990년대 중반 이후 FTA 체결이 급속도로 증가해 50여 개에 불과하던 FTA가 2012년도 2월에는 325건으로 세계 교역량의 절반을 차지, 교역비중도 지속적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칠레·아세안·EU·미국 등 45개 국가와 8개 FTA 협정을 체결해 발효 중이며, 우리나라 전체 교역량에서 FTA 체결국과의 교역 비중은 약 3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FTA를 추진하고 있는 이유는 FTA를 통해 조금이라도 낮은 가격에 수출해, 시장을 확보하고 늘어난 수출이 경제성장으로 이어지고 다시 청년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우리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또 뛰어난 기술력을 갖춘 우리 중소기업이 FTA를 날개삼아 세계시장으로 뻗어나가, 독일·일본처럼 보다 많은 중소기업이 세계 1~3위 이내의 강소 중소기업, 이른바 '히든 챔피언'으로 성장해 나가야 우리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미 발효된 칠레와 페루, 지난 6월 타결된 콜롬비아 외에 다른 중남미 국가와의 FTA 체결을 준비 중인데 이들 국가와의 FTA 체결 의의는 무엇입니까?

미국과 EU 등과의 FTA가 이미 발효됐고 중국과의 FTA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등 거대경제권이나 국가와의 FTA는 어느 정도 본 궤도에 오른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무역 협회 국제무역연구원 등의 지적처럼 중남미와 아프리카 등과의 FTA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감합니다. 특히 중남미 시장은 우리와의 교역규모가 아직까지는 크지 않지만 빠르게 늘고 있고, 많은 성장 잠재력을 갖고 있어 관심을 갖고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원이 풍부하고 경제성장 잠재력이 큰 중남미 국가와의 FTA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면 우리가 목표로 했던 'FTA 허브' 국가가 완성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FTA무역종합지원센터의 'FTA 활용' 성공사례

FTA 애로 해결사…‘찾아가는 서비스’ 인기

정부와 민간 유관단체의 FTA 지원 사업을 통합,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관합동 지원기관인 FTA무역종합지원센터가 개소 5개월을 맞이하고 있다. 지난 2월에 문을 열어 현재까지 약 3,000여 건의 FTA 활용 상담을 진행해왔다. 그간의 FTA무역종합지원센터의 도움을 받아 FTA 활용에 성공한 수출중소기업 사례와 전문가들이 말하는 중소기업 FTA 활용 5계명은 무엇인지 소개한다. 글 우종국 기자

FTA무역종합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는 FTA 관련 유관 부처, 지원 기관, 전문가들을 한 장소에 모음으로써 분산된 지원 체계를 일원화한 것이 특징이다. 국내 중소기업의 경우 FTA 활용 역량이 대기업보다 떨어지고 전문 인력도 부족한 상황이라 어디서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한 장소에서 원스톱 서비스가 이뤄지면 이용자로서는 그만큼 쉽고 편안하게 지원 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지원센터에는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지식경제부·농림수산식품부·관세청·중소기업청의 6개 부처와 무역협회·코트라·대한상공회의소·산업단지공단·중소기업진흥공단·aT센터의 6개 기관, 관세사·원산지관리시스템 전문가 5명 등 총 31명이 참여하고 있다.

지원센터는 인터넷 상담 및 콜센터를 24시간 운영해 무역업계가 언제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는 맞춤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개소 이후 일평균 40건의 상담을 처리하면서 FTA 활용 애로 해소를 위한 단일창구로서의 역할을 확립했다. 상담은 평균 30분 이상이 소요되는 전문상담으로 상담 후 기업방문을 희망할 경우 방문컨설팅으로 이어진다. ‘찾아가는 현장 컨설팅’은 전문가가 현장을 방문한 뒤 FTA 활용 컨설팅 기업리스트에 등재하고 기업 스스로 원산지증명서 발급 및 증빙서류 유지·관리가 가능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이력을 관리하는 서비스다.

한편 지원센터로 들어오는 문의는 한·미 FTA 관련 문의가 가장 많았으며, 내용별로는 원산지 증명, 품목 분류 및 관세율 등이 다수를 차지했다. 업종별로는 제조공정이 복잡하고 원산지 기준이 까다로운 기계·섬유 분야가 가장 많았다. 

Interview 김기영 관세사

“중소기업 대다수 HS코드 모르는 경우 많아”

FTA종합무역지원센터의 베�테랑 김기영 관세사(사진)는 처음 상담을 하러 오는 기업들의 경우 자신들이 생산하는 품목의 세번(HS코드)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고 얘기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중소기업들이 납품업체로부터 갑작스레 원산지증명서를 요구받는 경우 많이 당황해 한다고 한다. 김 관세사는 “원산지 증명에 어려움을 느낄 수 있지만, 훌로 고민하지 말고 서울 FTA무역종합지원센터 또는 전국 16개 FTA활용지원센터의 문을 두드리면 쉽게 해결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김 관세사로부터 중소기업들이 FTA를 활용하기 위한 노하우를 들어봤다.



중소기업 FTA 활용 5계명



FTA 원산지 관리, 두려움을 버리고 일단 시작하라
FTA 교역 규모 지속 증가 예정,
서류 준비 및 관리는 원산지 관리 시스템으로



협력사, 국내 공급자와 함께 노력하라
원산지 관리의 특성 상 수출 물품 공급망 내 있는
업체의 참여, 협력 필요



**FTA지원센터 및 정부·민간단체의
FTA 지원 사업을 활용하라**
현재 FTA 무역 정책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 진행 중



원산지 결정의 예외 규정을 활용하라
널리 알려진 FTA 협정 내용 외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한
다양한 예외 규정 존재



FTA 활용이 악속해진 기업은 사후검증에 관심을 가져라
원산지증명서의 증빙서류 유지·관리가 핵심

FTA활용 성공기업, “작은 관심이 큰 효과로”



레이온 관세 12% 인하…미국 물량 증가

안산 반월공단의 Y사는 실크·면·레이온·나일론 직물(원단)을 생산해 미국·캄보디아·태국 등으로 수출하는 직원 50여 명 규모의 중소기업이다. 한·미 FTA에서 섬유 부문은 원산지 인정이 가장 까다로운 부분 중의 하나다.

한·미 FTA에서는 면·나일론을 비롯한 대부분의 원단에서 외국산 원사를 사용할 경우 한국산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실크·레이온·린넨의 3가지는 유일하게 외국산 원사를 써도 한국산으로 인정받는 예외 품목이다. Y사 대표는 마침 5월 3일 안산 반월공단에서 열린 FTA 활용 설명회를 통해 FTA무역종합지원센터에 컨설팅을 의뢰했다.

Y사는 실크·레이온을 중국산 원사로 국내에서 생산하고 있었는데, 한·미 FTA 발효 이후 원산지 인정을 받아 3.9%(실크), 12%(레이온)이던 관세 철폐 혜택을 볼 수 있었다. 면사의 경우 인도와 브라질산 목화를 수입해 국내에서 생산된 원사를 구입해 면직물을 만들었기 때문에 ‘원사 기준’을 충족해 7%의 관세 철폐 혜택을 볼 수 있었다. Y사는 5월에 미국 바이어와 12만 달러의 신규 계약에 성공했다. Y사는 3월까지의 수출액도 40만 달러로 1분기 예만 지난해 전체 수출액 90만 달러의 45%를 달성해 연간 수출 증가액 200% 이상을 기대하고 있다.



국산 원사로 변경…나일론양말 관세 18.8% 인하

성남 소재 M무역은 국내 2~3개 생산자로부터 양말을 공급받아 전량 수출하는 회사다. 면양말의 경우 13.5%, 나일론양말은 18.8%의 비교적 높은 관세가 철폐되면서 한·미 FTA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좋은 품목이다. M무역이 수출하던 면양말은 한·미 FTA 이전부터 국내산 면사를 사용했기 때문에 관세 철폐 혜택을 바로 받을 수 있었다. 가격인하 효과로 3월까지 전년 수출액 45억 달러의 46%인 20만 달러를 수출하는 데 성공했다.

나일론양말은 중국산 원사를 이용했기 때문에 원산지 인정을 받지 못했지만, 컨설팅 과정에서 관세철폐의 효과가 큰 것을 알고 3월부터 국내산 나일론 원사로 변경하기 시작했다. 지원센터의 이용만 관세사는 “국내산 원사로 변경하면서 원재료비가 15~20% 상승하지만, 인건비 등 제반 생산비용을 모두 더한 최종 판매가에서 가격인하(관세율 18.8%) 효과가 더 크기 때문에 공급선을 변경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적극적 원산지 관리로 사후검증 대비

대전에 위치한 J사는 볼트·스크류·너트 등을 생산해 주로 국내 자동차 부품업체에 납품하는 회사로 직원 600여 명 규모의 중소기업이다.

J사의 경우 완성차 업체의 요청으로 원산지 증명을 오래 전부터 해오고 있었으나, EU 수출에는 HS코드를 ‘범용부품(7318)’으로 적용했고, 국내 고객사에는 ‘자동차용 부품(8708)’으로 적용하며 이중 관리를 해오고 있었다. 지

원센터가 이 상황을 관세평가분류원에 질의한 결과 범용부품(7318)으로 보아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얻었다.

지원센터의 이민선 관세사는 “자동차 부품업체들은 자신들이 직접 수출을 하는 것이 아니다 보니 원산지 증명에 대해 무관심한 경우가 많은데 이제는 이런 것도 잘 알고 있어야 한다. 미국처럼 원산지증명이 자율인증인 경우 협력업체들 스스로 검증해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중소기업 돋는 무료 컨설팅, 'FTA 닥터 컨설팅' FTA 품목 선별, 원산지 증명까지 OK

'FTA 닥터 컨설팅' 제도는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이 FTA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수출중소기업의 애로 사항을 해결해 주기 위해 전문가를 현장에 파견해 컨설팅을 진행하는 제도다. 닥터 컨설팅을 이용해 수출길을 연 기업의 사례로 FTA 활용 방법을 알아보자. 글 우종국 기자

#1 토클 컨설팅 받고 수출에 자신감 붙어

부산의 신발 제조업체 H사는 지난해까지 일본·홍콩으로 제품을 수출하고 있었지만, 신발 시장은 내수·수출 모두 치열한 경쟁상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미국으로의 진출이 필요한 상황이었지만, 미국 바이어들은 한국 제품의 우수한 품질을 선호하면서도 중국산 보다 20%가량 높은 가격 때문에 발주를 망설이는 것을 알게 됐다. 마침 한·미 FTA 발효를 앞두고 관세인하 효과나 원산지 증명 방법 등이 궁금했던 H사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의 'FTA 닥터 컨설팅'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컨설팅을 신청하게 됐다.

닥터 컨설팅은 전문가가 직접 기업체를 방문해 FTA 활용 방법과 원산지 판정 등을 종합적으로 컨설팅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H사는 한국산 신발은 모델별로 4.3~10%까지 관세가 전면 철폐된다는 것을 파악하고 바이어와 협상에 들어가 마침내 미국 수출길을 열게 되었다. 자신감이 붙은 H사는 이후 한·EU FTA를 활용한 프랑스 수출도 타진 중이어서 올해는 전년 대비 60%의 수출 증가가 예상되고 있다.

#2 원산지 증명 부담 줄고, 수출은 늘고

경북에 소재한 N사는 천연비누와 솔잎추출액을 생산·판매하는 회사로 2011년까지는 미국·베트남으로 소량만 수출하고 있었다. 한·미 FTA를 앞두고 관세혜택에 관심이 있었지만, 업무 부담 및 원산지 검증에 대한 부담 때문에 쉽게 추진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N사 역시 중진공의 닥터 컨설팅을 통해 한·아세안 FTA의 원산지 증명서 발급이 가능해져 미국은 kg 당 86.2 센트, 베트남은 15%의 가격 인하 효과를 누리면서 전년(수출 8억 원) 대비 2배 이상 늘어난 17억 원의 수출을 올해 예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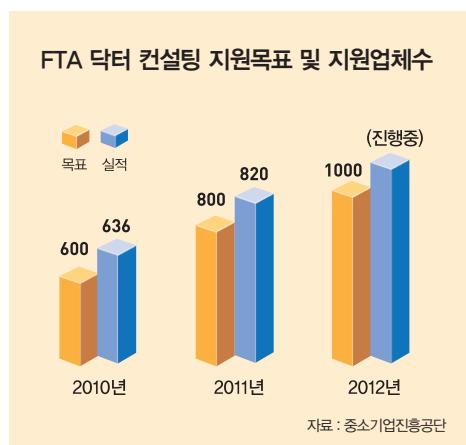
올해 지원업체 1000개로 확대 실시

위 사례처럼 H사와 N사는 닥터컨설팅을 통해 전문적인 컨설팅을 받아 FTA를 성공적으로 활용했지만, 상당수의 중소기업은 원산지 결정기준의 복잡성, FTA 활용 정보 습득 미흡, 전문 인력 부재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진공은 기획재정부의 지원 하에 국제원산지정보원과 공동으로 'FTA 닥터 컨설팅 사업'을 추진해 2010년 636개, 2011년 820개 업체를 지원한 데 이어 올해 이를 1000개 업체로 늘릴 계획이다.

FTA 닥터 컨설팅은 전문가가 기업을 방문해 2~3일간 기업을 방문해 원산지 활용 가능성이 있는 수출품목을 판단하고, 원산지 판정 실전 검토, 원산지 증명을 위한 가이드라인, 인증수출자 획득, 원산지 검증 방안을 제시한다. 올해부터는 '원산지 판정' '인증수출자 자격 획득' '원산지 검증' 등 3가지 분야로 업무를 세분화하는 한편, 그동안 관세사 169명, 회계사 166명 등 총 335명의 전문가 풀에 세무사를 추가시켜 전문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중진공은 컨설팅 지원업체 중 20개 업체를 선별해 그간 확보해 둔 해외 민간네트워크와 상호 매칭을 통해 신규시장 진출을 위한 시장조사, 바이어 발굴 비용을 지원(업체당 최대 600만 원)하는 사업을 벌이고 있다.

FTA 닥터 컨설팅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선착순으로 마감한다. 신청접수는 중진공 온라인시스템(fta.sbc.or.kr)에서 할 수 있으며, 지원 대상은 FTA 체결(예정 포함)국에 수출 또는 수출예정인 중소기업이거나 그 기업에 원재료 또는 완제품을 공급하는 중소기업이다. 문의는 중진공 마케팅사업처(02-769-6954)다. [FTA](#)



FTA 닥터 컨설팅이 중소기업들의 호응을 얻으면서 매년 컨설팅 업체 수가 증가하고 있다.

FTA 활용 중소기업 성공사례 경진대회 관세는 디딤돌일 뿐… 품질 높여야 효과 크다

관세청 주관으로 열리는 FTA 경진대회는 올해로 3년째를 맞아 중소기업청과 공동주관, 한국관세사회와 국제원산지정보원 후원으로 열렸다. 예선을 거쳐 온라온 총 열 팀의 발표자들은 FTA를 어떻게 활용했는가를 열정적으로 발표했다. 글 우종국 기자 사진 한국경제신문

“제가 대상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7월 24일 서울 코엑스 전시관에서 개최된 ‘2012년 FTA 활용 중소기업 성공사례 경진대회(이하 FTA 경진대회)’에서 대상 발표를 앞두고 경합한 4명의 중소기업인들은 자신감을 감추지 않았다. FTA라는 큰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직원들이 고군분투한 지난 1년의 노력들은 어디에 내놓아도 보람찬 것이었기 때문

이다. 특히 이들 발표에서 지난해 발효된 한·EU FTA를 비롯해 발효된 지 4개월 남짓 지난 한·미 FTA의 효과가 눈에 띄게 결실을 맺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기용 조준경을 생산하는 창원의 수옵티스는 처음부터 한·미 FTA의 효과만을 노리고 2008년 창업한 경우다. 총기류에 부착되는 조준경이니만큼 내수보다는 수출, 특히 미국을 겨냥할 수밖에 없었다. 지난해까지 월 6,000개 이하이던 해외 주문량은 올해 FTA 발효 이후 관세 14.9%가 내려가면서 올 6월 2만 7,180개로 늘어 4.5배나 증가했다.

글로벌 자동차 업체 GM의 협력사인 중원정밀은 한·아세안



올해로 3년째를 맞는 ‘FTA 활용 경진대회’ 본선 참가자들의 발표에서는 한·미 FTA의 효과가 눈에 띄게 결실을 맺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FTA 발효 이후 관세가 30~60% 낮아지면서 대 아세안 수출이 2년 만에 368%가 증가했고, 이때의 경험으로 한·EU FTA, 한·미 FTA를 문제없이 대처해 유럽 수출은 2년 동안 328% 증가, 2012년 미국 수출은 2009년 대비 1,203%가 예상되고 있다.

대상은 경남 김해에서 40년 넘게 낚시바늘을 만들어온 김화규 금호조침 대표에게 돌아갔다. 금호조침은

2000년대 초까지 공급이 달릴 정도로 호황을 맞았으나 경기 침체로 부도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까지 내몰리기도 했다. 그러나 한·아세안 FTA 발효 이후 5~15%로 제각각이던 관세가 0%로 일률적으로 하락하며 기회를 맞았다. 낚시바늘은 열핏 대단한 기술이 필요없을 것 같지만, 금호조침은 열처리와 도금 기술 수준을 높이며 특히 3건과 실용신안 12건을 획득하기도 했다.

심사위원회는 “FTA로 관세가 인하됐다고 무조건 국내 중소기업이 혜택을 보는 것이 아니라, 부단한 기술 개발로 품질 경쟁력을 갖추는 노력이 함께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대상 선정 이유를 밝혔다. 

‘한·중 FTA의 경제적 효과와 추진 전략’ 세미나 중국 내수 공략 위해 FTA 필요에 공감



“중국 내수를 뚫기가 쉽지 않다.” “중국 내수를 뚫기 위한 가장 중요한 수단이 FTA다.” 지난 7월 1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국국제경제학회 주최로 열린 ‘한·중 FTA의 경제적 효과와 추진 전략’ 세미나에서는 국내 통상학계의 저명한 학자와 정부 관계자들이 모여 4시간에 걸쳐 열띤 토론을 벌였다. 지난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20년 동안 중국과의 교역량은 35배 늘었고, 한국의 대 중국 투자는 21배 늘었다. 2004년부터는 한국의 가장 큰 교역국이 됐고, 현재 교역 비중은 20%를 넘어 10%인 일본과 9%인 미국의 2배가 넘는다.

이날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중국과 한국의 제품이 일부 겹친다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향후 중국에 대한 정책으로 돌아서는 것에 대비해 한국이 중국과 FTA를 맺어야 하고, 더불어 이는 북한의 후견인 역할을 하는 중국을 통해 한반도 평화에 기여하는 정치적 효과도 있다는 점에 공감했다.

팽이버섯 수출 '한국버섯수출사업단(KMC)'

공동브랜드 띄우자 로열티·인지도 '걱정 끝'

FTA는 위기이자 기회이다. 국내 산업구조를 고부가가치 위주로 재편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이다. 농업에서도 개별 농가가 홀로 수출을 개척하던 형태에서 벗어나 공동수출을 하기 위해 뭉치는 움직임이 확대되고 있다. 글 우종국 기자 사진 KMC 제공

웰빙 건강요리 샤브샤브에 없어서는 안 될 야채 중의 하나가 팽이버섯이다. 한국산 팽이버섯은 농약과 방부제를 쓰지 않고도 오랫동안 신선도를 유지하고 쫄깃한 식감과 향이 뛰어나 세계적으로 고품질을 인정받고 있다. 그간 국내 팽이버섯 생산 농가들은 수급이 불안정한 내수시장에 머무르지 않고 개별적으로 해외 바이어를 찾아 해외 시장 개척을 위해 노력해 왔다.

그러나 버섯 종주국인 일본과 대량 생산으로 물량 공세를 펼치는 중국에 비해 그 실적은 미약했다. 유기농으로 생산된 국내 팽이버섯이 상품성을 갖추고 있었지만, 효과적인 홍보가 이뤄지지 않아 해외시장 개척이 어려웠고, 성수기인 6~11월과 비수기에 물량이 조절되지 못해 수출 안정화를 이루지 못했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국내 팽이버섯 대부분이 외국 품종이라 생산이 늘어날수록 막대한 로열티를 지불해야 했기 때문에 개별 농가들은 내수시장에 주력할 수도, 수출을 확대할 수도 없는 상황에 놓여 있었다.

중국산보다 품질 '업', 일본산보다 가격 '다운'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정부는 2009년 12월 전국 7개 팽이버섯 생산 농가와 함께 뜻을 모아 '한국버섯수출사업단(KMC)'를 설립했다. 현재 11개 농가로 회원사가 늘어난 KMC의 국내 팽이버섯 수출량은 전체의 80%에 달한다. KMC는 팽이버섯의 해외 수출 물량 증대, 해외시장 개척, 선진화된 수출 시스템을 정착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자체 이윤을 추구하지 않아 순이익은 회원사들에게 배당되며 실비로만 운영된다.

출범 이후 KMC는 일본·홍콩·베트남 등 여러 나라에서 개최되는 농산물 박람회에 적극 참가해 수출시장 발굴을 위해 노



11개 농가가 모여 국내 팽이버섯의 80% 이상을 담당하는 한국버섯수출사업단(KMC)은 2009년 공동브랜드 출범으로 수출시장 개척과 비수기 대처라는 문제를 해결했다.

력했다. 또 브랜드를 활실히 드러낼 수 있는 포장 박스와 CI를 제작해 지속적으로 노출시킴으로써 인지도를 높이는 데도 노력을 기울였다.

이러한 공동 마케팅을 펼친 결과 팽이버섯 불모지였던 베트남시장에 진입하는 성과를 이뤘고, 주변의 태국·인도네시아·미얀마·싱가포르 등 동남아국가들도 KMC와 한국의 팽이버섯을 주목하기 시작했다. 로열티 문제 역시 순조롭게 해결했다. 개별 수출업체와 일본 종군회사와의 개별 계약이 아니라 KMC라는 공동브랜드로 나서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기존 40억 원대에 이르던 연간 로열티를 3~4억 원대로 대폭 절감하는 성과를 이룬 것이다. 임만석 KMC 대표는 "개별 업체가 수출을 진행할 때는 한 달에 컨테이너 4개를 수출했던 것에 비해 KMC 설립 이후 매달 컨테이너 20개가 넘을 만큼 수출 물량이 5배 이상 늘었다"고 전했다.

FTA는 한국산 팽이버섯 점유율 높일 기회

지난해 KMC는 1만1,000톤, 1,700만 달러치를 수출했다. 올해는 비수기인 상반기에만 4,200톤, 700만 달러치를 수출한 상태다. 수출 비중은 베트남 24%, 미국 21%, 홍콩 13% 순이다. 베트남의 경우 2009년 발효된 한·아세안 FTA 이후 15% 이던 관세가 10%로 인하되면서 가격 경쟁력을 얻었고, 올해 3월 발효된 한·미 FTA 이후 'kg 당 8.8센트+20%'이던 관세가 매년 'kg 당 1.8센트+4%'씩 인하돼 2016년 완전히 없어진다. KMC 측은 "미국의 경우 아직까진 물량 변화가 없지만, 20% 이상의 관세가 없어지는 2016년까지 중국·일본 제품보다 가격 경쟁력이 높아져 한국산 팽이버섯의 점유율을 확대할 기회"라고 자신감을 나타냈다. ■

한식 포장제품 전문업체 '사옹원'

'한류' 품은 '한식'… 미국 수출 '청신호'

충북 음성의 사옹원은 전·튀김·꼬치·잡채·호떡·떡볶이 등 조리가 복잡하고 손이 많이 가는 한식을 간편하게 즐길 수 있도록 제품화해 보급하는 업체다. 최근 전 세계의 한류 열풍과 FTA에 힘입어 한식이 관심을 모으면서 사옹원은 국내 시장의 한계를 딛고 수출로 홀로를 모색하고 있다. 글 우종국 기자 사진 서범세 기자

서울 중구에서 한 시간 반 거리인 충청북도 음성의 한적한 시골, 인적이 드문 가운데 짐을 가득 실은 대형 트럭들이 바삐 오가는 곳이다. 곳곳에 풀무원을 비롯한 소규모 공장들이 드문드문 들어서 있어 수시로 물건을 실어 나르기 때문이다. 그 가운데 자그마한 규모로 한식 포장제품 전문업체 사옹원의 공장이 들어서 있다. 1996년 설립된 사옹원은 직원 130명, 매출 200억 원(2011년) 규모의 소규모 식품업체로, 주로 전·튀김·꼬치·잡채·호떡·떡볶이 등의 포장제품을 생산해 국내외에 판매하고 있다.

기계 의존도가 높은 햄이나 장류와 달리 한식은 일일이 재료를 섞고 부치고 뒤집어야 하는 등 '손'이 많이 간다. 기계가 김말이를 말고 전을 부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인해 대기업도 손을 대지 않는 분야로 제품 표준화 등의 연구개발이 잘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나 최근 아시아는 물론 미국 유럽 등에 한류 열풍이 불면서 덩달아 한식의 인기가 올라가 사옹원은 16년 외길의 결실을 거두고 있는 중이다. 현재 사옹원은 일본·미국·호주·홍콩·싱가포르 등 20여개국으로 수출길을 넓히고 있다.

한국산 쌀로 바꿔 떡볶이 관세 면제 혜택 받아

사옹원이 생산하는 제품은 전·김말이·떡볶이 등 원재료가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 특징이다. 때문에 썩거나 오래된 재료를 쓰면 그대로 표시가 나기 때문에 품질 좋은 재료만을 고집 한다. 그러나 한식제품의 가치를 인정받는 데 국내에서는 한계가 있어 일찌감치 수출길을 모색했다. 그러나 작은 업체가 해외마케팅을 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고, 현지 수입업자들



어려움 속에서도 한식에 대한 고집을 지켜왔던 사옹원은 최근 해외의 한류 열풍에 힘입어 16년 외길의 결실을 거두는 중이다. 최근 FTA를 적극 활용해 아세안과 미국 수출에 공을 들이고 있다.

도 선뜻 확신을 갖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이를 돌파하기 위해 사옹원은 적극적으로 정부 수출지원책을 찾아 나섰고 FTA종합무역지원센터를 통해 원산지증명 컨설팅을 받을 수 있었다.

가장 처음 이용한 것이 한·아세안 FTA였다. 태국에서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떡볶이의 원산지 증명을 받아 5%이던 관세를 면제받는 것이 과제였다. 떡볶이의 경우 소스·양배추·양파·당근·파망·소금 등 부재료들은 모두 한국산을 사용하고 있었으나 떡의 경우 중국산 쌀을 이용해 원산지 증명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상담을 통해 국내산 쌀로 바꾸면서 관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태국 수출에서 자신감을 얻은 사옹원은 한·미 FTA라는 보다 큰 기회를 적극 활용하기로 하고 원산지증명에 도전했다. 미국으로 가장 많이 수출되는 김말이의 경우 중국산 당면을 사용해 까다로운 부분이었다. 그러나 지원센터의 상담 결과 '미소기준(식품의 경우 가격 기준 10% 이내 비한국산 인정)'을 적용해 원산지증명을 받아 7%이던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었고, 한·미 FTA 발효 이후 미국 바이어와 6,000만 원 상당의 김말이 튀김 수출 계약에 성공했다.

이 회사의 이원섭 전무는 "처음에는 일반 관세법인을 이용하다가 신문광고를 보도 지원센터를 알게 되어 컨설팅을 의뢰했는데, 일반 관세사에 비해 적극성, 정확성이 높았다. 또 지원센터 관세사는 기업에서 무역을 담당했던 경험이 있어 기업 생리를 잘 알다 보니 피부로 느낄 정도로 기업 실무에 도움이 됐다"며 만족감을 나타냈다. ■

FTA 주요 품목 소비자 가격 동향

관세인하 폭이 큰 품목들 가격인하 효과도 커

7월 주요 수입품목의 가격동향을 조사한 결과 한·미, 한·EU FTA 발효 이후 오렌지, 체리, 자동, 와인, 승용차, 치즈, 호두 등을 중심으로 가격이 인하되고 수입품목이 확대되면서 국내 소비자 후생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글 이홍표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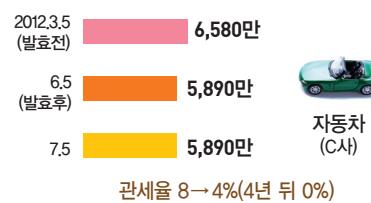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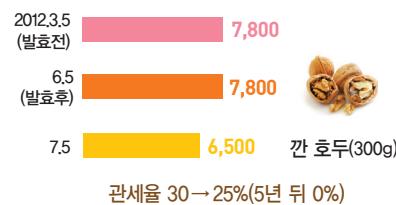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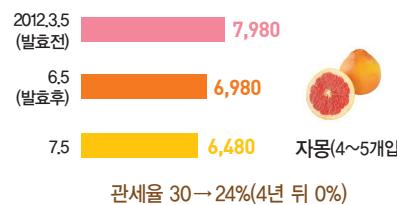
한·미 FTA 품목



한·미 FTA 품목의 경우 올 3월 발효 이후 관세인하 폭이 큰 품목들의 가격인하 효과가 커졌다. 대표적으로 오렌지의 경우 발효 전인 3월 5일 개당(280g) 1,350원이었으나 발효 직후 980원으로 인하됐고, 7월 5일에는 900원까지 내려갔다. 오렌지의 경우 국내 감귤성 수기인 9~2월에는 50%의 관세가 유지돼 국내 감귤 농가를 보호하되, 비수기에는 올해 30%로 내린 것을 시작으로 매년 5%p씩 내려가 6년 뒤 완전 철폐된다. 따라서 향후 오렌지 가격은 더욱 내려 소비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체리는 기존 수입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았던 품목이지만 관세 24%가 즉시 철폐되면서 수입이 개시됐다. 국내 대형마트에는 6월부터 500g 당 8,800원에 들어오기 시작해 7월에는 5,800원으로 크게 낮아졌다. 자동의 경우도 4~5입들이 한 봉에 7,980원이던 것이 발효 직후 6,480원으로 내렸다. 호두(깐 것)의 경우도 관세가 5%p 내리면서 발효 전 300g에 7,800원이던 가격이 7월에 6,500원으로 낮아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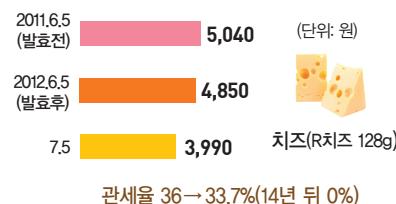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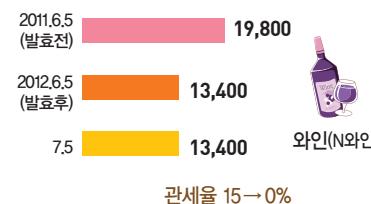
특히 미국산 와인은 관세 15%가 즉시 철폐되면서 소비자들의 관심을 얻고 있는데, 칠레·유럽산 와인에 이어 새로운 와인을 맛보려는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미국산 베린저하이트진판델의 경우 FTA 발효 전 1만9,600원이던 가격이 7월에는 1만3,500원으로 하락했다.



한·EU FTA 품목



발효 1년이 넘은 한·EU FTA 품목의 경우 한·미 FTA 품목과 겹치는 품목은 가격 경쟁이 심화되면서 추가 가격 인하로 소비자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프랑스 와인의 경우 지난해 발효 직후 인하된 가격이 수요가 증가하면서 인상되기도 했지만, 한·EU FTA 이후 다시 가격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프랑스산 N와인의 경우 한·EU FTA 발효 전 1만9,800원, 발효 후 1만3,900원으로 최근에는 1만3,400원으로 내렸다. 유럽산 치즈도 미국산 치즈와 경쟁하며 가격이 하락했다.



출처 : 기획재정부 'FTA 주요 수입품목 소비자가격 동향(7월)'

한·캐나다 FTA 협상 재개를 앞두고

투자 활성화, 자원 개발 확대 등 기대감 높아져



글 김연식 KOTRA 토론토무역관 관장

G20 회의에서 4년 3개월만에 협상 재개 합의

지난 6월 멕시코에서 개최된 G20 정상회의에서 한국과 캐나다는 그 동안 중단된 FTA 협상을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2005년 7월부터 2008년 3월까지 총 13회에 걸친 협상을 마지막으로 중단된 이후 4년 3개월 만에 다시 협상을 시작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이 같은 협상 재개 합의는 올해 발효된 한·미 FTA에 영향을 받은 비가 크다. 한·미 FTA 발효 이후 캐나다 일각에서는 한국 시장을 잊지나 않을까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천연자원이 많이 매장된 서부지역의 목소리는 더욱 거세다. BC주, 앨버타주, 사스캐처완주 수상들은 공동으로 “이제 눈을 아시아로 돌려야 할 때”라고 연방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실제로 캐나다 수출의 75%, 수입의 60%가 미국과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분위기를 의식해서인지 캐나다 정부는 연초부터 아시아 국가와의 교역확대를 강조하고 있다. 스티븐 하퍼 총리가 올 1월 다보스 포럼에서 아시아 국가들과 교역확대를 통해 캐나다의 교역을 다양화해 나가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2월 중국과 외국인투자보호협정을 체결하였고 7월에는 일본과의 FTA 협상을 본격화하고 있다. 반대의 목소리도 있다. 캐나다 자동차산업노조(CAW) 및 자동차제조협회(CVMA)가 대표적이다. 한·캐나다 FTA로 캐나다산 차량에 대한 8%의 관세가 철폐되더라도 한국에서 캐나다산 자동차의 판매는 크게 늘지 않는 반면, 캐나다에서 6.1%의 관세가 철폐되는 한국산 자동차의 판매는 크게 늘 것으로 전망하고 있기 때문이다. 올 1/4분기 자동차 판매현황을 보면 FTA 체결 이전임에도 현대자동차가 승용차 부문에서 포드·GM·도요타 등 캐나다에서 생산되는 5개 완성차 업체들을 제치고 캐나다 판매 1위에 올랐고, 기아자동차가 7위에 올랐으니 FTA가 체결되면 자신들의 일자리가 없어질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다.

상호 보완적 무역 구조… 양국 간 원·원 기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국 정상이 협상 재개를 선언한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 양국은 상호 보완적인 무역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 캐나다에 자동차·반도체·휴대폰·산업기계류·타

이어·세탁기 등 공산품을 수출하고 있는 반면, 캐나다는 한국에 유연탄·밀·구리·육류·펄프·알루미늄·목재 등 한국이 부족한 천연자원 및 농축산물을 수출하고 있다.

2011년에 한국의 수출은 49억 달러, 수입은 66억 달러로 처음으로 무역규모가 100억 달러를 넘어섰다. 현재 미국·일본·중국산과 경합하고 있는 휴대폰·가전제품·산업기계류 등 공산품의 수출이 더욱 크게 증가하고, 우리 기업들의 캐나다 자원개발에 대한 투자도 한층 가속이 붙을 것이다. 내년이면 수교 50주년을 맞이하는 양국은 FTA 체결로 교역 200억 달러 시대를 앞당기고 투자 활성화, 자원개발 확대, 인적교류 확대 등 협력 증진을 통해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것이다.

한국은 캐나다에 자동차·전자제품·기계 등 공산품을 수출하고, 캐나다는 한국에 유연탄·밀·구리·육류·펄프·알루미늄·목재 등 한국이 부족한 천연자원 및 농축산물을 수출하는 상호 보완적 무역 구조를 갖고 있다.



상반기 농식품 수출 증가 '식품 한류'로 경제 위기 극복한다

그리스 총선 등 유럽 재정 위기로 세계 경제가 들썩였던 올 상반기 한국의 농식품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5.6%가 증가하면서 한국 수출산업의 혜자 노릇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들에서 한국의 농식품 수출이 늘어난 것은 주목할 만하다. 글 우종국 기자

한류 열풍과 FTA 효과와 더불어 한국산 농식품도 전 세계적으로 사랑을 받으면서 수출이 눈에 띄게 늘고 있다. 상반기 농식품 수출 증가율(5.6%)은 국가 전체 상반기 수출 증가율 0.7%에 비해 8배나 높은 수준이다.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상반기 농림수산식품 수출은 37.2억 달리였으며, 특히 신선농산물이 17.2%, 수산물이 8.5%의 큰 증가율을 기록했다. 수출 비중이 큰 가공식품도 1.5%로 소폭 증가했다.

아세안·EU·미국으로 농식품 수출 증가

품목별 수출 증가율을 살펴보면, 신선농산물의 경우 인삼을 제외한 채소류가 49.1%, 과실류가 19.5%, 버섯류가 21.6% 등 전 품목이 고루 증가했다. 신선식품의 경우 운송기간이 짧아 일본 등 아시아 지역으로의 수출 비중이 높은데, 올 상반기 일본에서 한국산 신선식품의 수요가 많아진 것이 대 일본 수출품목들의 수출 증가율이 높아진 원인이다.

한편 수산식품의 경우 참치·고등어·김의 증가세가 눈에 띄었다. 2억8,030만 달러로 신선식품 중에서는 물량이 비교적 큰 편이다. 참치 수출은 47.5%가 증가했는데, 4월 이후 어획량이 회복되고 수출단가가 kg 당 2.37US달러에서 3.08US달러로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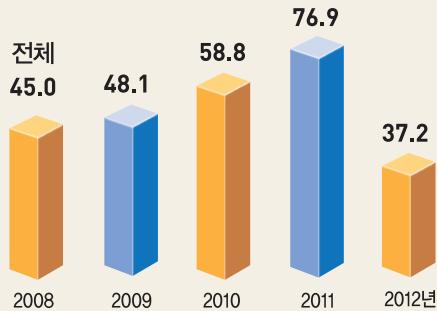
하면서 수출액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고등어는 무려 116%가 증가했는데, 통조림 가공용 소형고등어의 이집트 수출이 664%나 증가하며 4,200만 달러의 수출고를 올렸다.

가공식품의 경우 조제분유·음료·맥주·라면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45.5%의 증가율을 보인 조제분유는 최근 중국 분유 제품의 안전성 우려, 일본 제품에 대한 방사능 우려로 한국산의 수요가 크게 늘고 있다. 음료는 미국·중국·러시아 등으로의 수출이 늘어나 21.8%가 증가했다. 맥주는 지난해부터 일본시장에 자체 브랜드와 대형 유통업체 OEM 공급의 양방향 진출을 통해 일본에만 645%가 늘어나 전체 18.8% 증가율을 보였다. 라면은 중국·동남아·EU 지역에서 한류가 확산되고, 현지인 입맛에 맞는 제품 개발로 소비층이 현지인으로 확산되고 있다. 올 상반기 12.3%의 수출 증가율을 보였다.

국가별로는 FTA 체결국에 속하는 아세안·EU·미국 등이 증가했고, 러시아·홍콩·대만 등은 감소했다(그래프 참조). 수출이 18.4% 증가한 아세안은 참치(52% 증가), 커피(120%), 커피 조제품(18%) 수출이 늘었고, 미국은 음료(48%), 김(24%), 오징어(39%) 수출이 늘었다. EU는 참치(47% 증가), 라면(11%), 음료(12%)의 수출이 늘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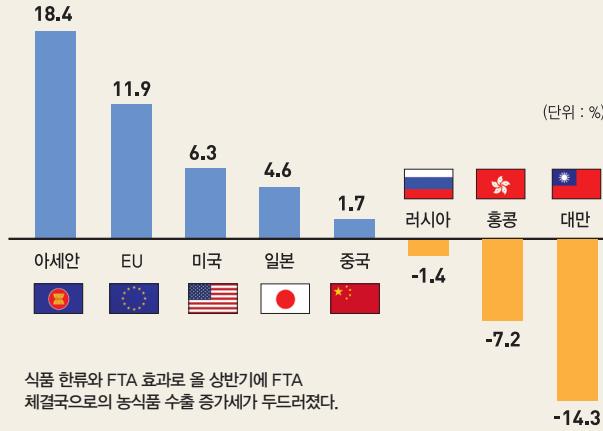
연간 농식품 수출액

(단위 : 억달러, 2012년은 상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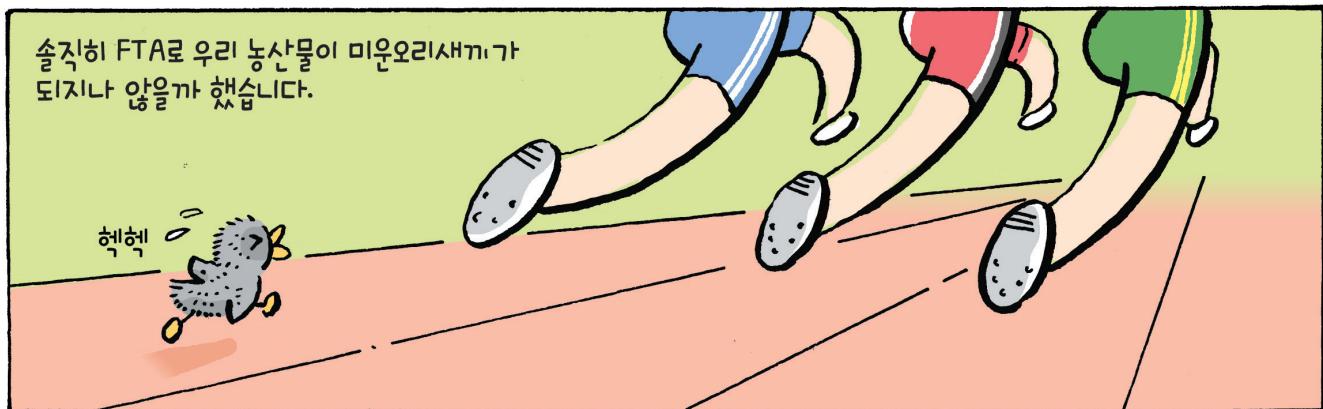
상반기 농식품 수출 국가별 증가율

(단위 : %)



하늘로 비상(飛上)하는 아름다운 백조

안종만



FTA는 우리 농산물 수출 확대의 큰 기회가 될 것입니다.

한·중 FTA 현황과 진단

커지는 중국 내수 시장, FTA로 선점하자

한국 최대의 교역국인 중국과의 FTA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중국과의 FTA가 체결되면 한국은 세계 최초로 유럽·미국에 이은 '빅3' 시장과 자유무역을 맺은 나라가 된다. 한·중 FTA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체결 전략은 어떠해야 할까.

글 김영한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 사진 한국경제신문

지난 5월 2일, 중국에서 한·중 FTA 공식협상 개시가 선언된 이래, 지난 7월 3~5일 제주도에서 양국 정부간 2차 협상이 개최되었다. 1차 협상은 협상 개시에 합의한 것이 주요 내용으로 2차 협상이 사실상 실무적인 협상의 첫 단계였다. 이로써 한국과 중국의 FTA는 역사적인 첫 발을 디딘 셈이다.

한국은 이미 세계 최대 경제권인 EU, 미국과 FTA를 체결하는 동안 어느 정도의 경험도 축적된 만큼 한·중 FTA 협상도 무난히 진행될 것이라는 기대도 있지만, 여러 가지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중국과의 FTA는 장기적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중 FTA에 대한 첫 번째 우려는 중국에 대한 경제의존도를 심화시킨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대외 교역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가히 압도적이다. 한국의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4.2%(2011년)로, 이는 미국(10.1%)과 EU(10.0%)를 합한

것보다도 크다. 또한 수입에서의 비중도 16.5%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지나친 의존도를 고려할 때, 한·중 FTA로 대 중국 경제 의존도가 더욱 심화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제기되는 것이다.

또한 지난 2분기 중국경제성장률이 2009년 세계 경제 위기 이래 처음으로 7.6%로 하락하면서 중국 경제에 대한 전망이 어둡다는 점도 우려를 부른다. 중국 경제성장률의 마지노선이라고 믿어지던 8%가 무너진 것 외에도 중국은행의 여신규모가 2008년 GDP의 122%에서 2010년 171%로 급증하면서 금융 부실화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이런 거시지표의 일시적 하락을 곧 중국경제위기의 정후로 해석하기는 이르다. 그간 정부 및 국영기업 주도의 투자 지출은 51% 이상의 높은 저축률에 의존해왔던 만큼, 거시지표 악화에 따른 대규모 자본유출의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또한 비교적 낮은 이자율에도 불구하고, 중국에는 은행예금 이외에는 다른 자금운용기회가 제한되어 있어 중국은행의 지불 준비율은 20%를 상회하는 등 유동성은 매우 양호하다. 이와 함께 중앙정부의 채무비율도 GDP의 25%수준으로 건실한 상태여서, 중국경제 단기간에 위기국면에 처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또한 중국정부와 국영기업의 투자여력은 매우 높은 편으로, 기존 산업에 대한 투자뿐만 아니라 대규모 사회간접자본·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한 투자 여력이 남아 있는 만큼, 정부의 재정 집행에 따른 성장 여력은 큰 편이다. 이는 미국이나 EU가 최근 경기침체에 동원할 수 있는 정책수단이 거의 없는 현실인 상황에서 실효성 있는 경기부양 수단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거대경제권이 중국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한·중 FTA는 단순히 우리 수출시장을 확보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장기적인 성장잠재력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큰 의



중국은 한국의 최대 수출 시장으로서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4.2%로, 이는 미국과 EU를 합한 것보다도 크다.

“
한·중 FTA는 단순히
우리 수출시장을
확보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장기적인
성장잠재력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7월 3일 제주 롯데호텔에서 한·중 FTA 2차 협상이 개시된 가운데 최석영 외교통상부 FTA 교섭대표를 수석대표로 하는 한국 측 협상단과 위치언화(俞建華) 상무부 부장조리(차관보급)를 수석대표로 하는 중국 측 협상단이 민감품목의 범위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미를 가진다. 또 일본의 3배가 넘는 외환보유고 등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중국의 여건을 고려할 때 한·중 FTA를 통한 양국 간 경제협력의 확대는 대외경제충격에 취약한 한국에 있어 외부충격의 완충장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중 FTA에 대한 두 번째 우려는 한국과 중국 간 국제 분업 구조 때문에 FTA가 한국 산업구조에 가져올 충격에 대한 우려다. 한국은 과도한 중국 수출 의존도를 가진 데다 산업 구조 상 자본재 수출비중은 52%, 중간재 수출비중은 33%를 상회할 정도다. 수입에 있어서도 자본재가 40%, 중간재가 30%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양국 간 국제 분업 구조가 매우 심화된 수직적 국제 분업 구조를 가지며, FTA는 이런 상황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는 우려이다.

현재까지는 주로 대기업을 중심으로 국제 분업이 진행돼 왔는데, 전체 생산 공정 중 한국이 상대적으로 비교우위를 점하고 있는 기술집약적인 R&D 및 제품 개발 공정, 부품 생산 공정은 한국에 위치하고, 중국이 비교우위를 가진 노동집약적 생산 공정은 중국으로 이전하는 형태였다. 이런 수직적 국제 분업 구조는 FTA로 국제거래비용이 낮아지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기업의 경우라면 한국에 기술집약적 생산 공정만 남겠지만, 노동집약적 저부가가치 제조업의 경우 전체 생산 공정이 중국으로 이전되는 산업공동화가 심화되면서 상당한 구조조정 압력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런 구조조정 압력은 우리 경제에 대한 위협이라기보다는 기회라는 측면이 강하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는 거대 경제권과의 FTA 추진이라는 정책목표 하에서 이미 EU, 미국과 FTA를 체결하고 또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에 체결했던 FTA의 경우, 한·중 FTA에서 예상되는 것에 비하면 산업 구조조정 압력이 상대적으로 작았다. 그 결과, 농업

부문에 대한 피해 직불제도와 각종 피해산업에 대한 소득보전형태의 현금성 지원이 이뤄지면서, FTA 추진 과정에서 단순농업이나 비교열위 산업부문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산업구조조정 노력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는 못했다.

우려보다는 경제 체질 개선으로 대응해야

반면 한·중 FTA는 그 상황이 근본적으로 다르다. 한·중 양국 간 무역구조에서 드러나듯 양국은 거의 동일한 산업 구조적 특성을 갖춘 가운데, 중국은 단순농업 및 노동집약적 제조업 부문에서 절대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한·중 FTA는 단순농업 및 노동집약적 저부가가치 제조업부문에 그 이전의 FTA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차원의 구조조정압력을 가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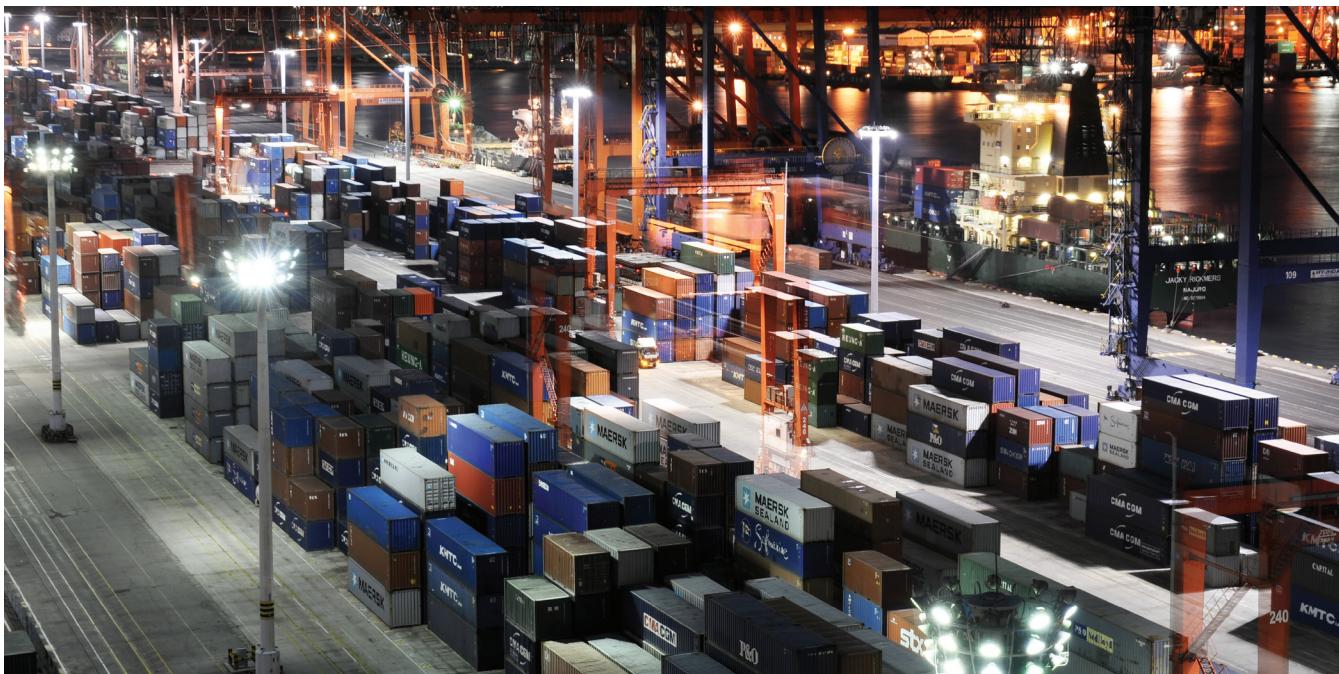
따라서 정부가 범국가적 차원에서의 체계적인 산업 구조조정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위한 막대한 재원을 산업 정책적 차원에서 마련해 비교열위 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정책을 체계적으로 집행할 경우, 한·중 FTA는 우리경제가 고부가가치 경제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시장개방 후, 비교열위 산업에서 나타나는 실업과 기업 도산이라는 단기적 사회적 충격을 흡수하고, 고부가가치화 및 비교우위 부문으로의 전환 과정까지 최저생계를 보장해 줄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것도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이처럼 한·중 FTA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체계적인 산업 구조조정 체계와 사회안전망이 구축될 경우, 한·중 FTA는 우리경제 체제와 사회시스템을 선진국 수준으로 옮겨놓는 도약의 단계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FTA는 단순히 수출시장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이 아니라, 우리나라 모든 생산요소의 효율적 재배치를 위한 산업정책이기 때문이다. ■

한·미 FTA 주요 성과

한·미 FTA 발효 후, 한국 제품 미국 시장 점유율 상승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발효 후 5개월 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수출기업 등에서 긍정적인 신호가 지속적으로 포착되고 있다. FTA는 특히 중소기업들이 수출 확대의 모멘텀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글 이진원 기자



한·미 FTA 발효 이후 자동차 부품·섬유 분야에서 대미 수출에서의 FTA 활용률이 6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 이후 한국산 제품의 대미 수출이 가시적으로 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한·미 FTA 발효 이후 미국 수입시장 점유율 국제비교'에 따르면 지난 4월 미국 수입시장에서 한국 제품의 점유율은 2.89%를 기록하며 3%에 근접했다.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최고치다.

한·미 FTA로 한국 제품들이 미국 내 경쟁력이 제고되면서 경쟁관계인 일본 제품(미국시장 점유율 6.39%)과의 격차는 3.49%포인트로 좁혀졌다. 오상봉 국제무역연구원장은 "일본과 점유율 격차가 좁혀진 가장 큰 이유는 한·미 FTA 발효 효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대만과 점유율 차이는 1.12%포인트로 벌어졌다. 2009년 이래 최대 격차다.

미국시장에서 한국제품의 선전은 한·미 FTA 수혜품목에서 두드러진다. 자동차 부품의 대미 수출은 최대치를 경신 중이다. 올 1~4월 기어류의 대미 수출은 예년에 비해 세 배 정도 늘었다. 특히 이제까지 저가의 중국·베트남 제품에 밀려 마이너스 성장세를 면치 못하던 섬유·의류 수출이 분위기 반전을 이뤘다. 한·미 FTA 발효로 11.5% 관세가 철폐된 면 소재 제품의 대미 수출은 발효 전에 비해 61%, 14.9%의 관세가 사라진 인조섬유 제품은 58% 늘었다.

한·미 FTA 이후 미국서 일본 제품 코 앞 추격

최근 들어 중국 등에 공장을 두고 있는 국내 중소기업들이 FTA 관세철폐 효과를 누리기 위해 국내로 생산기지를 이전하는 이른

바 ‘U턴 기업’도 눈에 띈다. 국내와 인도네시아에서 의류를 생산해 90% 이상을 미국에 수출하는 누리안 인터내셔널은 FTA 발효를 계기로 DKNY·빅토리아 시크릿 등의 바이어들이 중국·동남아에서 생산해오던 제품의 일부를 누리안 한국 공장에서 생산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이다

국내 수출업체들 가운데서는 FTA의 효과를 톡톡히 보는 중소기업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FTA 관세인하 효과 등을 활용해 신규 바이어 확보, 중국산 경쟁제품 대체, 신규 고용창출 등을 성공적으로 이뤄낸 것이다.

지난 6월 21일 중소기업청과 중진공의 자료에 따르면 한·미 FTA 발효 전후인 지난 3~4월 중소기업의 대미 수출증가율은 전년 동기대비 15.0% 증가했으며 수출 중소기업 수도 지난해 같은 기간 9,131곳보다 140곳 늘어난 9,271곳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자동차부품, 기타 플라스틱제품, 편직물, 반도체 등 관세 즉시철폐 품목의 전년 동기대비 수출증가율(16.8%)이 균등철폐 및 비수혜품목(13.8%)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진공은 “FTA로 중소기업 수출이 증가하고 있으며 개별 중소기업 성공사례도 속속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창원·울산 등 한·미 FTA 효과 톡톡히 봐

이 같은 활발한 수출활동에 힘입어 수출업체들의 대미 수출액이 증가하고 있다. 경남 창원세관이 한·미 FTA 발효후 창원공단 입주업체들의 대미 수출·입 실적을 최근 분석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 6월 중순까지 수출액은 11.3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7.8억 달러에 비해 45.8%(3.5억 달러)가 늘었다. 반면 수입은 1.7억 달러로 지난해 동기의 1.9억 달러 보다 11.0%(2,157만 달러)가 줄었다. 주요 수출 품목은 굴삭기 등 건설장비가 가장 많았고, 냉장·냉동기구, 세탁기, 절단기계, 공작기계, 전기변환소자 등 순이었다.

울산시가 분석한 울산지역 기업들의 한·미 FTA 발효 이후 실적도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지난 5월까지 대미 수출액은 26억9,800만 달러로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31.2% 증가했다. 특히 유럽 재정 위기와 중국경제 하락 등 세계적 경기침체로 같은 기간 울산 전체 수출액은 전년도 동기에 비해 11.2%가 감소해 미국 수출 증가세와 대조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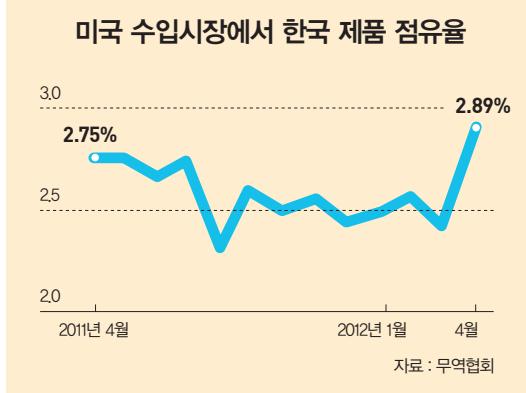
같은 기간 대미 수입액은 6억1,300만 달러로 13.5% 늘었다. 대미 수출은 자동차와 자동차부품, 철강류가 주도했다. 자동차는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무려 52.9%가 증가한 13억9,600만 달러를 기록하며 대미 수출액의 절반을 차지했다. 또 관세가 철폐된 자동차 부품도 35.9%, 석유제품은 12.3%, 철강류는 35.5%가 증가했다.

한·미 FTA 활용률 갈수록 확대

국내 업계의 한·미 FTA 활용률은 60%를 초과할 정도로 활발하다. FTA무역종합지원센터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의 한·미 FTA 수입 통관 통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으로부터 11억9,600만달러(4월 기준)가 한·미 FTA를 활용해 수입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한·미 FTA의 수혜 업종으로 알려진 자동차부품, 섬유 분야의 FTA 활용률이 60%를 상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자동차 부품 61.6%, 섬유 68.7%). 석유화학, 타이어 등 대기업 중심의 수출제품의 경우에는 한·미 FTA 활용률이 80% 수준에 이른다(석유화학 81.5%, 타이어 79.4%). 특히 농수산식품의 경우 대미 수출규모가 4,900만 달러에 불과하지만, 한·미 FTA 활용률이 76.9%에 달하고 있다. 농수산업계도 한·미 FTA를 적극 활용해 시장개척에 노력하고 있다는 게 센터의 판단이다.

미국에서도 FTA를 통한 한국 기업들의 교역량 증가를 체감하고 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 지역의 기업 가운데 절반 가량이 한·미 FTA로 한국과 거래가 늘었거나 증가를 검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로스앤젤레스 주재 한국 총영사관에 따르면 한국과 거래하거나 한국과 거래할 의향이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벌인 결과 조사 대상 기업의 46%가 한국과 거래가 늘었거나 앞으로 늘릴 것을 고려 중이라고 답했다.

아예 기존 거래선 대신 한국 기업과 새로 거래한다는 답변 2%를 합치면 48%가 한·미 FTA 발효 이후 거래에 변화를 맞은 것으로 분석됐다. 15%는 한국으로 수출하거나 한국에서 수입하는 거래량이 증가했다고 답했고 31%는 앞으로 한국으로 수출 또는 한국에서 수입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한·미 FTA로 열리는 미국 조달시장

문턱 낮아지고 기회 넓어져... 중소기업들 '기대'

그간 미국의 조달시장은 우리 기업에게 매우 까다로운 시장으로 인식됐다. 그러나 한·미 FTA로 미국 조달시장 개방 폭이 확대되면서 중소기업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열리고 있다. 개방 확대로 입찰 하한선이 낮아짐과 동시에 미국 내 납품실적이 없어도 국내 조달 실적이 있으면 상호 인정해주기로 하면서 문턱이 많이 낮아졌기 때문이다.

글 우중국 기자



미국상품우선구매법(BAA: Buy American Act)은 연방정부가 조달하는 물품은 국내(미국)에서 생산·채광·제조된 것으로 제한하고 있지만, WTO의 정부조달협정(GPA: Government Procurement Agreement)에 가입한 회원국과 FTA 체결국가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한국은 1994년 WTO GPA에 가입했고, GPA는 1996년부터 발효됐다.

한·미 FTA 상에서의 조달시장 개방 확대 내용을 보면 양국은 중앙정부기관의 물품 및 서비스의 양허하한선(입찰 규모)을 WTO GPA 상의 20만 달러(한국은 2,5억 원)에서 한국 1억 원,

미국 10만 달러로 인하됐다. 각국 지방정부 및 공기업은 한·미 FTA에서 제외되었지만, 기존의 WTO GPA에 따라 미국의 37개 주정부 및 공기업 6개의 조달시장은 사실상 개방되어 있는 상태다.

자국 조달 실적 상호 인정하기로

이번 한·미 FTA로 인해 조달시장에서의 가장 큰 변화는 해외 실적을 상호 인정하는 부분이다. 입찰참가자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과정에서 자국 내 실적만을 요구하는 것을 금지도록 한 것

이다. 그간 한국의 중소기업들이 미국 조달시장에 참여하려 해도 그간의 미국 내 실적이 없으면 사실상 참가가 불가능했지만, 이제는 국내 조달시장 실적만으로도 미국 내 실적과 동일한 효력을 인정받게 되는 것이다.

1996년 WTO GPA 발효 이후 한국 건설업체들의 미국 정부조달 공사수주는 총 8건, 1,595달러에 불과했다. 대부분의 국내 건설사들은 미국 내 실적이 없어 원칙적으로 미국 정부조달 공사 수주가 불가능했는데, 이는 미국이 과거 일정기간의 자국 내 실적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미 FTA로 국내 건설업체는 한국 정부조달 공사 실적을 바탕으로 미국 정부조달 시장 참가가 가능해져 미국 진출이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양허하한선 인하로 신규 개방되는 미국 조달시장은 약 6조 원(10만~20만 달러 구간에서 국방조달 제외) 규모로 물품 3.5조 원, 용역 2.5조 원 수준, 한국은 약 5,000억 원 규모로 물품 3,000억 원, 용역 2,000억 원 수준이다. 조달시장 개방으로 기대되는 효과를 살펴보면, 한국 조달시장에서 국제입찰대상 물품은 대부분 운수장비(52%), 전기기기(18%) 등으로 양허하한선 인하에 영향을 받지 않는 품목이라는 점에서 추가개방에 따른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용역은 경영컨설팅 및 기술용역(77%)과 컴퓨터 관련 용역(13%)의 비중이 높아 업종에 따라 다소 영향을 받을 수 있으나, 추가개방 규모(2,000억 원)를 고려하면 미국 기업의 참여 확대는 크게 확대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조달시장에서 한국 기업의 진출비중이 높은 분야는 사

한·미 정부조달 양허 수준 비교

구분	한국	미국
양허 기관	중앙정부기관 51개	연방정부기관 79개
양허기관	물품·용역 1억 원 건설 500만 SDR	10만 달러 500만 SDR
적용 대상	물품 양허기관이 조달하는 양허금액 이상의 모든 물품 용역 WTO GPA 한국양허표에서 개방된 서비스	동일 WTO GPA 미국양허표에서 개방된 서비스
기타	건설 CPC 51 건설서비스 • 학교급식 예외조항 규정 • '국가계약법', 동법 시행령 '민투법'에 의한 중소기업 예외조항 규정	동일 • 학교급식 예외 규정 • 소기업 및 사회적 약자 기업에 대한 예외조항 규정

※자료 : 국회입법조사처



한·미 FTA 발효로 미국 정부 조달시장 진입 문턱이 낮아짐에 따라 국내 기업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되고 있다.

무기기(17%), 운수장비(15%), 화학제품(24%) 등이라는 점에서 사무기기 등은 미국의 추가개방에 따른 국내 기업의 진출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용역은 부동산서비스(29%), 법률·경영컨설팅 및 기술용역(29%) 등이 미국 용역 조달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우리기업의 참여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과의 경쟁이 없다는 점이 매력

이런 전망은 그간 미국이 각국과 체결한 FTA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FTA 타결 후 상대국이 미국 정부조달 시장에서의 비중이 크게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칠레의 경우 미국과 FTA가 발효된 2004년에는 조달시장 실적이 28만 달러였지만 1년 뒤에는 587만 달러로 20배 가까이 늘었다. 호주의 경우도 2005년 미국과의 FTA가 발효되면서 전년 대비 128%의 증가율을 보인 바 있다.

특히 미국 조달시장에는 민간 상품 시장에서 한국과 경쟁하는 중국이 GPA를 맺지 않았다는 점에서 한국에게 좋은 기회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한국 기업들의 미국 조달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있는 코트라 오종혁 워싱턴 무역관장은 미국 조달시장의 잠재성을 강조한다. “미국 연방정부 조달시장은 불황을 타지 않고 시장 규모가 크다. 6,000억 달러 규모로, 주정부까지 합하면 1조5,000억 달러에 달한다. 한국도 똑같이 미국 기업에 조달 시장을 개방했지만, 미국의 조달 시장 규모가 더 크기 때문에 한국에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며 “민간에서는 중국 제품의 장악력이 높지만 조달 시장에서는 아직 중국에 개방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에 많은 기회가 있다. 대만도 지난해에 서야 개방해 아직 활발하지는 않다”고 전했다. 



알기 쉬운 '원산지 증명의 모든 것' 제품별로 제각각…'HS코드'부터 쟁겨라



원산지 증명이란?

#01

사람에게 각각의 국적이 있듯이 상품에도 국적이 있다. 이를 증명하는 것이 원산지 증명이다. 상품의 경우 한국에서 만든 원재료로 한국에서 생산이 이뤄지면 한국산이 된다.

그러나 국제 분업이 발달한 오늘에는 100% 순수한 국내 생산을 찾아보는 것 자체가 어렵다. 호주에서 생산된 철광석을 중국의 용광로에서 녹여 철을 생산하고 일본에서 그 철로 부품을 만든 뒤 그 부품을 이용해 한국에서 가전제품을 만들었다면 과연 그 제품의 원산지는 어디일까? 실무적으로 들어가면 무수하게 많은 제품들이 있기 때문에 원산지를 규정하는 하나의 공식은 존재하지 않는다. 제품마다 HS코드를 찾아 원산지 규정을 일일이 찾아봐야 한다.

HS코드란?

#02

그렇다면 제조업체나 농민이 생산한 제품의 원산지를 어떻게 파악할 수 있을까. 첫 단계는 그 물품의 'HS(Harmonized System)코드'를 파악하는 것이다. HS코드(세번(稅番)이라고도 함)는 상품 교역에

사용하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합의된 제품 코드를 말한다. 오랫동안 무역업을 해온 오퍼상이라면 수출입 목록의 HS코드를 이미 잘 파악하고 있을 것이다.

전 세계 공통의 HS코드는 앞 6자리로 되어 있다. 6자리는 대개 2자리씩 끊어 세 단계로 구분되는데, 대개 '대분류-중분류-소분류'로 생각하면 된다. 예를 들어 '870421'이라면 앞 87은 자동차 전체를, 8704는 화물차를, 870421은 5톤 이하 화물차를 나타낸다. 관세사들은 이를 2단위, 4단위, 6단위 구분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2단위 분류는 01(산(生)동물)에서부터 97(예술품)까지 총 97개 품목으로 이뤄져 있다.

그러나 같은 제품이라도 용도에 따라 달라지기도 한다. 고춧가루의 경우 채소로 분류된 고추의 하위 품목으로 볼 수도 있지만, 가공식품에 쓰였을 때는 향신료로 분류되기도 한다. 이 경우 2단위가 완전히 다른 제품이 된다. HS코드를 늘 접하는 관세사들은 이를 빗대 성형수술한 얼굴을 두고 '6단위가 바뀌었다, 2단위가 바뀌었다'는 식으로 우스갯소리를 주고받기도 한다. 6단위 변경은 연필이 색연필이 되는 정도지만, 2단위라면 연필이 휴대폰으로 바뀔 정도로 큰 변화라는 뜻이다.

각국은 공통된 6자리 HS코드를 바탕으로 각자의 HS코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미국은 8자리를, 한국은 10자리 코드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앞 6자리는 공통이기

HS코드 읽기

8 7 0 4 2 1

— 2단위 — — 4단위 — — 6단위 —

— 자동차 —————— 화물차 ——————

————— 5톤 이하 화물차 ——————

한국이 각국과 FTA를 속속 체결하면서 전 산업에 걸쳐 원산지 증명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개별 기업은 수출과 거리가 멀더라도 그 기업의 생산물을 구매한 업체가 수출제품을 만든다면 해당 기업에 원산지 증명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수출 비중이 높은 한국에서 원산지 증명은 이제 제조업자들의 새로운 고민거리가 됐다.

어려워 보이기만 하는 원산지 증명, 이번 호에서 총정리했다. 글 우종국 기자 사진 서범세 기자



관세청 FTA포탈 원산지 결정기준 검색 화면

때문에 어느 나라든 앞 6자리 숫자만 같으면 웬만큼 다 통하게 되어 있다. FTA 체결 과정에서 각각의 HS코드별로 관세 및 원산지 규정 기준이 마련되므로, HS 코드를 알고 있다면

‘관세청 FTA포탈 원

산지 결정기준 검색 화면(fta.customs.go.kr→FTA 협정세율 및 원산지 기준)’에서 관세 및 원산지 규정을 찾아볼 수 있다. HS코드를 모를 때는 관세청 또는 전국의 FTA활용 지원센터에서 물어보면 된다.

원산지를 만족시키려면?

#03

원산지 결정기준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면 외국산 재료를 수입해 제조한 결과 수입재료와 다른 HS코드의 물품이 생산되면 한국산으로 인정하는 ‘세번변경기준’, 국내 생산과정에서 일정수준의 부가가치가 발생한 경우 한국산으로 인정하는 ‘부가가치기준’ 등이 있다. 원산지 결정이 ‘세번변경기준’ 하나만 있다면 좋겠지만, 지금의 제조업에서는 외국산 부품을 사용해 형태가 다른 원제품을 만드는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대개 부가가치기준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부가가치를 산정하려 해도 국내 회계원칙에 따라 각 원재료·부품의 가치를 산정해야 하는데, 이 경우 회계상의 ‘평균법’이나 ‘선입선출법’이나 등을 구분해야 한다. 또한 비원산지 재료의 비율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구매장부에서 판매장부까지 수많은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쯤 되면 회계장부와의 씨름이다.

제품마다 원산지 기준이 왜 다른가?

#04

각국은 FTA 협상 시 자국의 이익을 위해 보호해야 할 물품은 원산지를 까다롭게 규정하고 있다. 한·미 FTA의 경우 원산지 규정을 가장 까다롭게 정의하는 것은 섬유 제품이다. 미국은 섬유 제품의 경우 원사까지 한국산을 쓰지 않으면 한국산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는 중국에서 원사를 수입해 만든 한국산 의류를 수출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신발의 경우도 갑피에 쓰이는 가죽을 한국산으로 쓰지 않으면 원산지 인정을 하지 않는다.

반면 철강이나 석유화학의 경우는 비교적 느슨한 편이다. 수입 철광석이 국내 고로를 거친 철강 제품은 국산으로 인정하고, 석유화학의 경우도 화학반응이 일어나면 원산지 인정을 하고 있다. 한국이 강점을 갖고 있는 자동차·전자제품의 경우 기준이 다양하지만 원산지 인정이 까다로운 편은 아니다. 자동차와 전자제품은 눈에 보이는 하드웨어보다 거기에 들어간 기술력과 소프트웨어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기관증명과 자율증명 어떻게 다른가?

#05

‘기관증명’ 방식은 정부 기관의 원산지증명 서를 발급받아야만 하는 것이다. 한국의 경우 세관과 상공회의소에서 발급한다. ‘자율증명’ 방식은 기관의 검증을 받을 필요 없이 수출자가 자율적으로 작성하면 된다. 한국은 칠레·미국과는 자율증명을 택했고, 아세안, 인도는 기관증명을 택하고 있다. 유럽의 경우는 자율증명이 되 ‘6,000유로 이상 수출자는’ 한국 세관으로부터 인증번호를 받은 뒤 자율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다. 일종의 자격제도다. 자율증명은 번거로운 절차가 필요 없다는 장점이 있지만, 한 번 걸리면 호되게 폐널티를 무는 경향이 있다. 미국은 2001년 멕시코(NAFTA 체결국)에서 수입된 부품에 대한 입증자료 제출을 거부한 포드(Ford)에 4,2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한 바 있다. [\[1\]](#)



맛으로 즐기는 'FTA 라이프'

치즈, 체리… 더 맛있게 더 풍성하게 즐기세요

내 안의 활기를 불어넣어주는 신선한 맛의 세계, 한·미 FTA로 더욱 실속 있게, 더욱 풍성하게 즐길 수 있는 맛의 보석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

글 이현주 기자



치즈를 가장 맛있게 먹는 방법

대부분의 치즈는 실온에 놓아두었다
먹을 때 가장 맛있다. 냉장고에
넣어두었던 치즈는 먹기 30분에서
1시간 정도 전에 미리 냉장고에서 꺼내
잘 덮어두었다가 먹으면 맛이 일품.
특히 큰 덩어리의 치즈일 경우에는 날이
잘 선 깨끗한 칠로 아직 차가운 상태일
때 먹을 만큼 잘라 준비하고 나머지는
잘 썬 후 냉장고에 보관해두자.

치즈

입맛에 맞게 골라먹는 재미 톡톡!

사르르 입안에서 녹는 고소하고 부드러운 치즈 맛에 반한 사람들
이 적지 않다. 그야말로 남녀노소가 모두 즐기는 간식 중의 하나
가 치즈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 치즈 인기에 걸맞게 우리나라에는 연간 약 2,000억 원
(2010년 기준)에 달하는 치즈를 수입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
이 바로 미국산 치즈다.

한·미 FTA 발효 이전까지 이들 치즈들에는 36%의 관세가 부여되어 있었지만 한·미
FTA 발효 이후 10년에서 15년에 걸쳐 관세가 점진적으로 철폐될 예정이다. 종류도 다양
한 만큼 입맛에 따라 골라먹을 수 있는 미국산 치즈, 어떤 것들이 있을까?

- **아메리카 체다(America Cheddar)** 위스콘신 주에서 생산되는 치즈로 일반 영국산 체다 치즈보다 수분 함
량도 높고 더 부드럽고 탄력 있는 맛으로 유명하다.
- **몬터레이 잭(Monterey Jack)** 캘리포니아가 원산지로 섬세하면서도 세련된 버터맛 향미가 일품으로 표면
에 결이 있고, 대리석(마블) 모양의 제품 등이 있다.
- **마스카pone(marcarpone)** 버터향이 은은한 치즈로 풍부한 거품으로 달콤하면서도 부드러운 맛을 자랑한다.
점도가 높고 풍성한 크림질감이 특징이다.
- **콜비(Colby)** 위스콘신 주가 원산지로 체다치즈와 비슷한 부드러운 향미를 지니고 있지만 체다보다 단단하
고 입자가 거친 편으로 작은 구멍이 송송 나 있기도 하다.

체리

맛, 색깔, 향기까지 일품

색깔이나 모양, 향기까지도 유혹적인 체리는 특히 영향과 효능이 뛰어나 과일계의 다이아몬드라고도 불린다. 일례로 항산화물질인 안토시아닌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콜레스테롤을 저하시키고, 노화방지에도 효과적이며 콜라겐을 보존하는데도 도움을 주어 피부미용에도 이롭다. 원래 미국이 원산지로 적절한 일조량과 기름진 토양이 갖춰진 미국 북서부의 워싱턴 주, 오리건 주, 아이리호 주, 유타 주에서 생산되는 일명 워싱턴 체리는 전 세계 체리 생산량의 70%를 차지한다. 워싱턴 체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빙(bing) 체리와 레이니어(Rainier) 체리다.

우리나라는 1년에 약 4,889만 달러(2011년 기준) 규모의 체리를 수입하는데, 그 중에서 미국산 비중은 80% 이상에 달한다. 수입규모는 매년 눈에 띄게 늘었는데 앞으로 더 큰 규모로 늘어날 예정이다. 한·미 FTA 발효로 이전에 부과되던 약 24%의 관세가 완전 철폐되었기 때문이다.

오렌지&레몬

상큼하게 맛있게 건강하게 즐기는 과일 비타민

비타민C·섬유질·비타민A 등이 풍부해 감기예방·피로회복·피부미용 등에 좋고 지방과 콜레스테롤이 없어 성인병 예방에도 도움이 되는 오렌지는 한때 비싸서 선뜻 손을 내밀기 어려웠던 과일 중 하나다. 무려 50%에 달했던 관세가 붙어있었던 까닭이다. 하지만 한·미 FTA 발효 이후 관세가 30%(계절관세, 3~8월)로 낮춰지고 또 점진적으로 관세가 낮아져 2018년에는 관세가 완전 철폐될 예정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더 실속 있게 오렌지를 즐길 수 있게 됐다.

미국산 오렌지는 크게 네이블(Navel)과 발렌시아(Valencia)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다. 이 중 발렌시아 오렌지는 세계에서 가장 많이 재배되는 품종으로 과즙이 풍부해 주로 주스 재료로 많이 사용된다. 그에 반해 주로 생과용으로 먹는 네이블 오렌지는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있는 오렌지 품종으로 씨가 별로 없고 겹질 벗기가 쉬워 쉽게 먹을 수 있는데, 캘리포니아에서 주로 재배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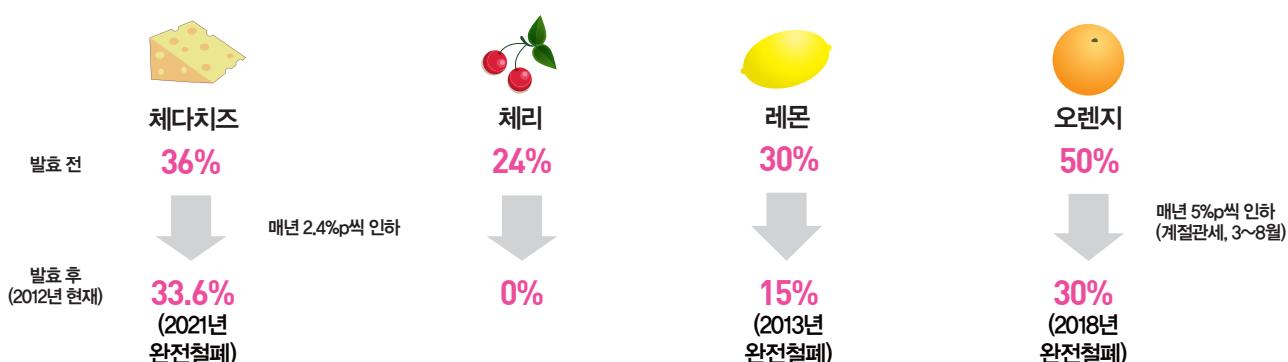
한편, 감귤류 중에서 비타민C를 가장 많이 들어있는 레몬은 구연산이 풍부해 피로회복에도 좋은 과일이다. 그 덕분에 요즘 건강과 다이어트 재료로 각광받고 있는 레몬은 주로 캘리포니아 및 아리조나 주에서 재배된다. 미국산 레몬 중 약 95%가 이 두 지역에서 생산되는 것이다. 밝은 노란색이 청량감을 더해주는 레몬은 기존 30%에 달했던 관세가 한·미 FTA 발효 이후 15%로 낮춰지면서 레몬디톡스, 레몬다이어트를 선호하는 여성들에게 가격인하라는 반가운 소식을 전해주었다. 



레몬에이드 맛있게 즐기기

집에서 만든 레몬에이드는 별로 맛있지 않다는 게 정설. 하지만 약간의 요령만 알면 집에서도 맛있는 레몬에이드를 즐길 수 있다. 우선, 레몬은 통째로 얇게 썰어 씨를 빼낸 후 약간의 설탕을 뿌려 6시간 정도 재워두는 것이 좋다. 이후 레몬을 수저로 눌러 부숴준 뒤 냉수와 탄산수를 붓고 얼음을 더하면 맛있는 레모네이드 완성!

한·미 FTA 발효 후 관세율 변화



FTA 파트너국 만나기

여름 바캉스에 딱! 매력 가득 FTA 관광지

뜨거운 여름, 갑갑한 일상은 쉼을 요구한다. 휴가를 부추긴다. 여름을 더욱 쿨하게, 핫하게 즐길 수 있는 FTA 관광지를 만나보자.

글 이현주 기자



인도네시아, 한 여름에 더욱 반짝이는, 수상레포츠의 천국

Indonesia

수도 자카르타

현 대통령 수실로 봄방

유도요노 (Susilo Bambang Yudhoyono)

언어 인도네시아어

면적 1,904,569km². 세계15위 (CIA 기준)

인구 약 248,216,193명.

세계4위 (CIA 기준)

GDP 8343억 달러. 세계17위 (2011 IMF 기준)

종교 이슬람교 88%, 개신교 5%, 가톨릭 3%

세계에서 네 번째로 인구가 많은 나라, 1만8,000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광활한 군도국가, 300여 종 이상의 종족이 모여살고 수백 개의 지방어를 사용하는 나라, 바로 인도네시아다. 섬이 많은 만큼 그만큼 다양한 문화와 다양한 가능성을 품고 있는 인도네시아는 천연자원이 풍부하기로 유명하다.

일례로 인도네시아의 원유는 전 세계 매장량의 0.5%를 차지할 정도이고, 천연가스는 전 세계 매장량의 1.5%를 차지하고 있다. 거기에도 세계 1, 2위의 수출량을 다투는 니켈, 석탄, 동, 주석 등의 자원과 동남아시아 최대의 산림자원 역시 인도네시아의 경제를 뒷받침하는 주요 자원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11년 5월부터 인도네시아와 함께 '한·인도네시아 FTA 공동연구 개시 합의'한 이후 자카르타와 서울에서 세 차례의 협상과 한 차례의 공청회를 거친 뒤 올해 3월 28일, 양국 정상회담에서 '한·인도네시아 CEPA 협상 개시'

를 선언했다.

한편, 1만 개가 넘는 크고 작은 섬들 중 사람이 살고 있는 섬은 약 6,000개 정도로 그 중 수마트라·칼리만탄·술라웨시·이리안자야·자바 등 5개의 본섬이 주요 거주지라 할 수 있다.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인기 있는 관광지는 바로 발리다. 그럼처럼 아름다운 해변을 따라 고급 휴양 리조트들이 즐비하고, 스쿠버ダイ빙·윈드서핑·수영·스노클링 등 다양한 수상레포츠를 즐길 수 있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신혼여행지로 각광받고 있다.

그 외에도 화산 분화구에 형성된 호수가 아름다운 장관을 연출하는 켈리무트, 화산에서 흘러나온 용암으로 생긴 구릉지가 절경인 롬복, 술탄의 성이나 네델란드 요새, 이슬람 모스크 등을 만날 수 있는 메단, 전통적인 방갈로와 광대한 숲지대에 서식하는 수마트라 코끼리를 볼 수 있는 코끼리 사파리 공원이 있는 우부드 섬도 인도네시아의 전통문화를 만끽할 수 있는 관광명소다.



터키], 아시아와 유럽의 매력이 가득, 오리엔탈 문화의 보고

Turkey

수도 앙카라

현 대통령 압둘라 굴

(Abdullah Gull)

언어 터키어

면적 783,562㎢. 세계37위
(CIA 기준)

인구 약 79,749,461명.

세계17위 (CIA 기준)

GDP 7630억 달러. 세계18위
(2011 IMF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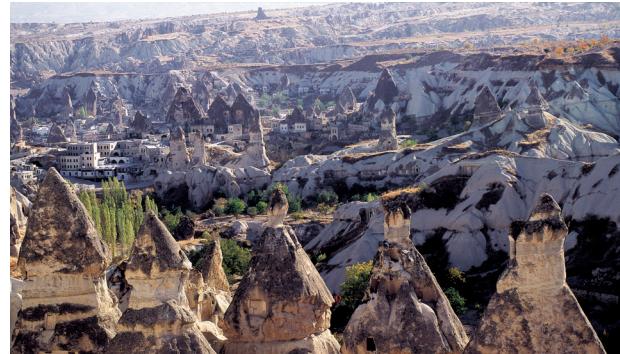
종교 이슬람교 99.8%

터키와 한국은 음악과 춤을 좋아하는 국민성은 물론 언어적인 특성도 닮아있다. 특히 6.25 전쟁 당시 군인을 파견한 인연 덕분에 터키를 ‘형제의 나라’로 부르곤 한다. 2008년 6월 ‘한·터키 FTA 공동연구 개시’ 이후 앙카라와 서울에서 네 차례의 협상과 한 차례의 공청회를 개최, 올해 3월 26일 기본협정 및 상품무역협정에 대해 가서명하고, 공식 타결 선언을 계기로 한국과 터키의 관계는 심정적 이웃에서 좀 더 확실한 경제파트너로 변화하고 있다.

터키는 비옥한 토양과 풍부한 수자원과 함께 지중해성 기후로 농업이 발달된 동시에 지하자원이 풍부하고, 세계적인 자동차 브랜드들의 공장들이 위치한 덕분에 자동차 내수시장도 크고 자동차 산업이 발전된 곳이다.

그 때문에 이번 한·터키 FTA 협상 타결로 터키로의 자동차·전기·전자·기계 등의 수출량이 더욱 늘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처럼 한국과 더욱 밀접한 관계를 맺게 된 터키는 세계적인 관광대국이기도 하다. 유럽과 아시



아를 잇는 지역에 위치한 덕분에 유럽적인 문화와 아시아적인 문화가 자연스레 어우러진 곳이며 또 한 이슬람 문화와 기독교 문화가 혼재된 곳으로 독특한 매력을 가진 덕분이다.

특히 세계에서 유일하게 두 개의 대륙에 걸쳐 있는 도시인 이스탄불은 특유의 오리엔탈 분위기와 어울리는 수많은 궁전 및 이슬람 모스크, 교회, 박물관 등으로 세계 각국의 여행객이 몰려드는 곳이고, 앙카라에는 그리스와 로마 제국에 의해 통치되었던 영향으로 세계 칠대 불기사의 중 하나인 다이아나 신전을 비롯한 수많은 그리스 로마 유적지가 남아있다.

이 외에 오스만의 아름다운 여름궁전과 비잔티움 성들을 볼 수 있고 지중해의 바다에서 수상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보스포러스, 고대 트로이 유적을 관광할 수 있는 다르다넬스 해협 등 신비로운 매력과 역사적 의미로 가득한 관광지들이 즐비하다. 물고기, 닭고기, 과일, 야채 등의 음식 재료가 풍부하고 다양한 문화의 영향을 받은 덕분에 발달된 터키의 요리문화도 주목할 만한 하다.

빵과 육류요리를 기반으로 하는 유럽식단에 가까운 터키 요리 중 세계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것은 터키전통음식인 케밥이다. 소고기·양고기·닭고기 등을 꼬챙이에 꿰어 바비큐한 케밥은 육류요리임에도 불구하고 콜레스테롤 함양이 적을 뿐더러 담백하게, 매콤하게 혹은 부드럽게 원하는 맛으로 즐길 수 있어 한국인들에게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세계 뮤지컬의
총본산인 미국
브로드웨이에 진출한
한국의 창작 뮤지컬
'영종'.

FTA로 탄력 받는 한국 문화 수출의 현장 한국 뮤지컬, 세계를 유혹하다

한국드라마, K팝에 이어 한국
뮤지컬이 세계 속에 한국
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고
있다. FTA를 통해 더 풍부한
경쟁력을 가질 것으로
예상되는 한국 뮤지컬의
수출 현황을 되짚어 보자.

글 박진영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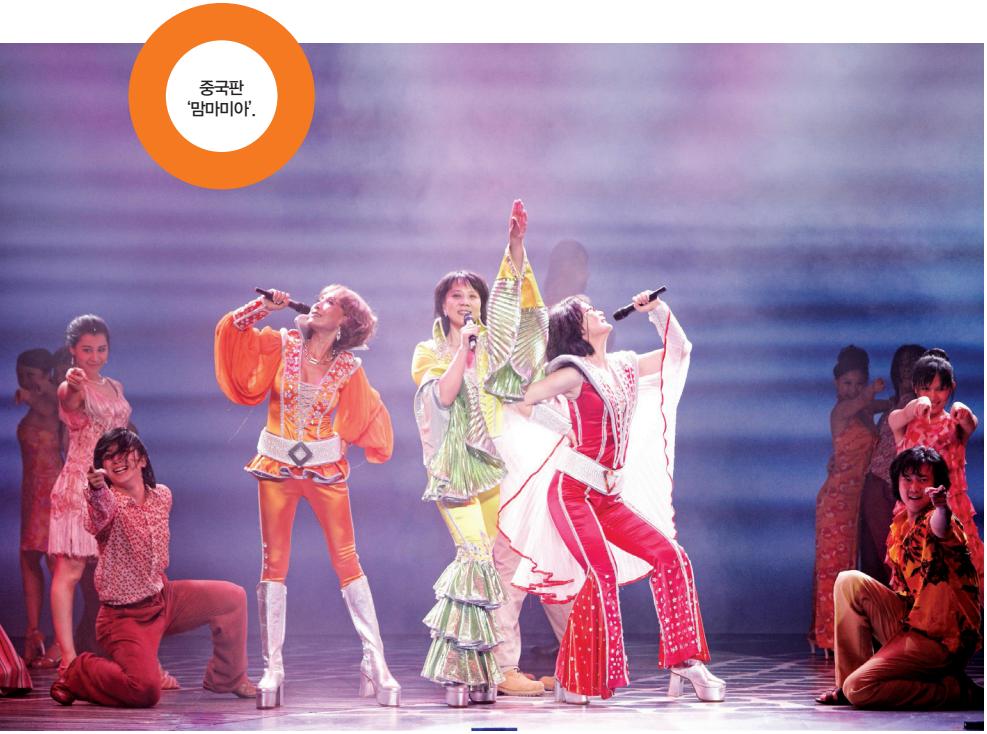
뮤지컬은 흔히 일반 대중문화보다 한 차원 수준 높은 고급 문화상품으로 여겨진다. 뮤지컬 한 편이 제대로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짜임새 있는 스토리라인·춤·노래·연기·연출은 물론 무대미술·조명 등 무대예술의 전 분야가 일정 부분 이상의 퀄리티를 갖춰야 하기 때문이다. 흔히 그 나라의 뮤지컬이야말로 그 나라 대중문화의 힘을 보여준다고 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그런 면에서 보자면, 요즘 한국 뮤지컬은 세계 속으로 전파되는 한국 문화상품의 좋은 예라 할 수 있다. 중국, 일본 등의 아시아는 물론 뮤지컬의 본고장이라 할 수 있는 미국에까지 진출해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으니 말이다.

한편, FTA를 통해 한국에 관한 관심이 커지고 교류가 늘어나는 가운데, 앞으로는 뮤지컬 수출도 좀 더 활기를 떨 전망이다. FTA를 통해 지금까지보다 좀 더 자유롭게 해외 시장에 진출할 수 있고, 또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획득할 수 있을 뿐 아니라, FTA를 통해 다양한 콘텐츠를 접할 수 있어 문화산업의 경쟁력 증대에도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 뮤지컬의 저력 과시

뉴욕의 브로드웨이는 그야말로 뮤지컬의 총본산이다. 난다 긴다 하는 세계 최고의 뮤지컬들이 공연되고 엄중한 관객의 판단을 받는 곳이다. 그런 이곳에 순수 한국 뮤지컬이 공연된 건 1997년 뮤지컬 '명성황후'가 최초였다. 아시아 최초의 브로드웨이 진출작인 동시에 LA, 런던 웨스트엔드, 캐나다 토론토 등에서 공연된 '명성황후'를 통해 세계 속에 한국 뮤지컬의 명성이 알려졌다. 그리고 지난해, 뮤지컬 '명성황후'의 제작사이기도 한 에





중국판
'맘마미야'.



일본판
'미녀는 괴로워'
포스터.

이콤인터넷내셔널은 안중근 의사를 소재로 다룬 '영웅'으로 다시 한 번 뉴욕 브로드웨이에 진출하며 화제를 모았다. 뮤지컬 '영웅'은 우리 역사를 바탕으로 교훈과 감동을 전해주는 작품으로 지난해 8월, 약 3주간의 브로드웨이 공연을 통해 현지 관객은 물론 현지 평단의 높은 평가를 얻어냈다. 자신감을 얻은 제작사 쪽에서는 콘텐츠 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한국 배우들의 공연을 자막판으로 공연하여 언어의 제약이 커던 것에 반해 앞으로는 콘텐츠나 판권 수출 중심으로 한국 뮤지컬의 기량을 세계 속에 과시할 예정이라고 한다.

현지화된 아시아형 캘러 콘텐츠 개발

중국은 최근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문화 산업 개방 및 육성 정책, 그리고 경제발전에 따른 소득 수준의 증대로 공연사업이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베이징·상하이·광저우 등의 1급 도시 이외에도 1인당 평균소득 1만 달러를 웃도는 대도시가 내륙에만 10여 개에 달하기 때문에 미국 브로드웨이와 유사한 투어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난해, CJ E&M은 중국 문화에 맞춰 각색한 '맘마미야'를 선보였다. '맘마미야'는 지난해 7월 첫 공연을 시작으로 올해까지 상하이·베이징·광저우를 비롯한 중국 내 10개 도시에서의 순회공연으로 뜨거운 인기를 누렸다. 특히 중국어 번안이 된 작품이기에 같은 중화권인 홍콩·대만·말레이시아 등으로도 확대 가능하다는 점에서 앞으로가 좀 더 기대되는 작품이라 할 수 있다. 한편, CJ E&M은 '맘마미야'에 이어 8월부터 중국판 '캣츠'의 순회공연도 추가 준비 중인데, 이를 통해 올해도 중국 대도시 각지에서는 교차로 '맘마미야'나 '캣츠'의 공연이 지속될 예정이다.

신 한류 시너지 파워

한국 뮤지컬이 현재 가장 각광받는 곳은 역시 한류 붐이 가장 크게 일고 있는 일본이다. 지난해 CJ E&M과 종합컨텐츠 제작사 쇼노트가 공동제작한 창작뮤지컬 '미녀는 괴로워'는 일본에서 가장 성공적인 반응을 이끌어 낸 한국 뮤지컬 중 하나다.

약 1,200석에 이르는 오사카 쇼치쿠 좌에서 일본 초연 무대를 가진 '미녀는 괴로워'는 대표적인 한류 스타인 '카리'의 박규리, '초신성'의 성제와 함께 한국 뮤지컬의 대표배우인 오만석, 바다 등이 캐스팅 되어 드라마와 K팝의 장점을 하나로 모은 종합 퍼포먼스로 완성도 높은 작품을 선보임으로써 K팝에 관심있는 한류팬뿐 아니라 다양한 일본 관객들에게 높은 인기를 누렸다.

이어 올해 10월에는 '초신성'의 광수와 건일을 메인 캐스팅으로 한국 창작뮤지컬 '런투유'로 일본에 진출한다. 뮤지컬 '런투유'는 DJ OZMA가 일본 버전으로도 불러 인기를 끌었던 DJ DOC의 노래를 뮤지컬라이징한 쥬크박스 뮤지컬이란 점에서 기존의 뮤지컬과는 차별화된 콘텐츠로 인기를 모을 전망이다. ■

무역 관련 퇴직인원을 FTA 활용 컨설턴트로 양성

베테랑 무역 역군, 'FTA 전사'로 거듭난다

기획재정부는 무역관련 대기업 은퇴 임원 등을 FTA 활용 전문 컨설턴트로 양성하기 위한 교육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중소기업들이 비즈니스 전략 수립 역량이 부족해 FTA를 최대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 하에 무역 관련 퇴직인원의 경험과 노하우를 FTA와 접목시켜 중소기업의 FTA 활용 비즈니스 전략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7월 19일부터 한 달간 교육생을 모집하고, 8월 27일 1차 개강을 시작으로 2013년까지 5회에 걸쳐 200명을 양성할 계획이다. 교육 프로그램은 FTA 활용 종합분석이 가능하도록 원산지 증명 이외에 시장개척, 마케팅, 통관, 생산, 물류 등 무역의 전 단계(15개)를 이해하고 FTA 활용에 의한 수익 창출 교육 위주로 구성된다.

교육신청자격은 무역 분야 퇴직자(무역 실무경험 10년 이상), 무역 분야 강의 경력자(10년 이상), 수출산업 분야 공무원 퇴직자(실무경력 15년 이상), 전문직 무역 관련 유경험자(변호사·관



기획재정부는 무역관련 대기업 은퇴 임원 등을 FTA 활용 전문컨설턴트로 양성할 계획이다.

세사·회계사 등)이다. 총 교육은 120시간으로 매일 6시간, 매주 3 일씩 7주 동안 실시되며, 교육비는 정부가 90%를 지원하고 교육생이 10%를 부담한다. 올해에는 대기업 퇴직 임원 등을 2차에 걸쳐 40 명씩 선발해 총 80명을 교육할 계획이다.

양성된 컨설턴트는 우선 FTA 컨설팅에 투입해 현장경험을 쌓은 뒤 FTA 활용지원센터 등의 상담·자문단, 기업 전문 인력 및 강사 등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이번 컨설턴트 양성 교육은 FTA를 활용한 새로운 실버 일자리 창출의 하나로, 무역을 이해하고 경험한 전문 인력을 교육해 활용함으로써 FTA 활용 컨설턴트의 절대 부족 문제를 조기에 해소하고, 은퇴한 무역달인들이 중소기업에게 생생한 경험과 실전 노하우를 전수함으로써 FTA 활용 길잡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FTA종합포털(www.ftabub.go.kr) 또는 한국FTA산업협회교육원 홈페이지(www.ftaac.net)에서 확인하거나 교육원에 문의(02-2203-0057)할 수 있다.

FTA 대책 밭 직불금 첫 시행 올해 8만4천ha, 334억 원 지급



정부는 한·미 FTA 발효로 예상되는 농업 피해를 보전하고자 올해 밭 농업 직접 지불제(직불제)를 도입하고, 첫 신청을 받은 결과 접수된 밭 면적은 8만4,000ha로 여기에 지급될 직불금은 334억 원 달한다고 7월 13일 밝혔다. 논에 지원하는 쌀 직불금 신청 논 면적은 87만3,000ha이고 지급예정액은 6,111억 원이다.

콩·고추·옥수수·마늘·참깨 등 19개 밭작물에 대해 ha당 40만 원을 지급한다. 올해 밭 농업 직불금을 신청한 농가는 24만4,000 가구다. 쌀 직불금 신청 현황을 지역별로 보면 전남(17만8,000ha), 전북(13만9,000ha), 경북(12만9,000ha) 등 순으로 많았다. 농식품부는 현지 확인 등 적격 여부를 확인해 지급 대상자를 확정한 뒤 12월에 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중소기업 FTA 활용 능력 제고를 위한 지역 설명회

찾아가는 설명회 창원·울산·부산 개최 예정



전국 순회 FTA 설명회가 올해 총 10회 개최 예정이다.

OK FTA 컨설팅으로 1,600개 기업 지원

‘FTA 사각지대’ 없앤다

FTA무역종합지원센터는 한·미 FTA 발효 100일을 맞아 FTA 활용 컨설팅 성과를 점검하고, 하반기 계획을 협의하기 위해 6월 22일 서울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전국 16개 지역 FTA활용지원센터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종합센터와 지역센터가 협력하여 업종·지역별로 특화된 맞춤형 컨설팅을 강화하고, 기업들이 만족할 때까지 책임지는 컨설팅을 제공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들이 논의됐다.

우선 하반기에 종합센터는 ‘OK FTA 컨설팅’사업을 통해 300개 기업에 컨설팅을 지원할 예정이며, 지역센터는 배치된 상주 관세사를 활용, 1,328개 지방기업에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 주요 국가산업단지와 지방산업단지에 FTA 상담 창구를 설치, 입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FTA 활용 역량이 취약한 중소기업협동조합, 농수산식품 업계 등을 대상으로 하는 FTA 설명회도 중점 추진키로 했다.

안현호 FTA무역종합지원센터장은 “상대적으로 FTA 관련 지원 사업 혜택을 받기 어려운 기업들의 지역별 수요와 특성을 고려한 FTA 활용 지원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네트워크를 강화하고 FTA에 대한 이해도 확산 및 중소기업의 FTA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5월부터 광역 시·도를 중심으로 전국 순회 설명회를 진행·운용 중에 있다. 설명회 주요 내용은 중소기업 관심사항인 원산지 관리, 해외마케팅, 무역금융 등 FTA 활용 등을 현장사례 중심 프로그램으로 편성해 FTA 전반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설명회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설명회는 올해 10회 정도를 개최할 계획이며, 7월 말 현재까지 대전을 시작으로 우리나라 IT 산업군이 몰려있는 천안 지역, FTA 수혜 업종인 자동차 및 부품업종이 많은 인천 지역과 상대적으로 내수 업종이 많은 원주 지역 등 총 4회에 걸쳐 실시했다. 하반기에는 창원, 울산, 부산 등 공단지역을 중심으로 설명회를 개최하여 지역 중소기업의 FTA 활용 능력 증진을 강화할 예정이다.

한·인도네시아 CEPA 1차 협상 개최 인구 세계 4위, 경제동반자로

한·인도네시아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제 1차 협상이 7월 12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한국 측 김영무 외교통상부 FTA정책심의관과 인도네시아 측 사할라 룸반 가올 공기업부 장관 전문자문관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번 제 1차 협상에서 양국은 한·인도네시아 CEPA 협정의 범위, 협상작업반 구성, 무역통계, 관세율 관련 정보교환 및 향후 협상 일정 등을 포함한 한·인도네시아 CEPA 협상 운영세칙에 대해 협의했다.

인도네시아는 세계에서 네 번째로 인구(2억4,500만 명)가 많은 나라로 아시아의 유망 신흥국이자 자원부국이다. 2009년 이후 지난해까지 연평균 5.9%의 안정적 경제성장률을 기록했고, 2011년 아세안 회원국 중 한국의 제 1위 교역대상국(수출 2위, 수입 1위)이다. 양국은 제 2차 협상을 금년 중 빠른 시일 내에 한국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누가 누가 잘했나

올 상반기 FTA 체결국 와인 판매 랭킹 7

글 이진원 기자

2007년 무렵 시작된 와인 열풍은 수많은 와인 애호가들을 낳았고, 이에 힘입어 국내 와인 판매량은 최근 글로벌 경기 침체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매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한·EU FTA가 발효된 지 1년 동안 국내 수입산 와인 판매량을 분석한 결과 유럽산 와인의 강세가 두드러진 반면 그간 많은 인기를 누려온 칠레산은 주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무역협회가 한·EU FTA가 발효된 지난해 7월 1일부터 올해 5월 말(11개월)까지 와인 판매량을 분석한 결과 전체 와인 수입은 금액으로는 16%, 수량(병)으로는 6% 증가한 반면, 유럽산 와인은 금액 대비 21%, 수량 대비 12% 증가해 전체 판매량보다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유럽산 와인은 점유율 면에서도 57%에서 59.5%로 늘어났다(금액 기준). 특히 스페인 와인은 39%나 증가했으며, 다른 지역 유럽 와인도 가격 하락으로 호응을 얻었다.

미국산 와인 수입 증가하자 유럽산은 가격 인하로 대응

국내 최대 와인 유통업체인 금양인터내셔널은 “유럽산 와인의 금액 신장률이 수량 신장률보다 높은 이유는 가격 인하로 인해 기준에 수입되지 않았던 고가 와인들의 수입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15만 원이던 이탈리아 와인 ‘미켈레 끼아를로 바르베라 다스띠 라 꾸르 뜨’는 2만 원 인하 후 16%가 더 팔렸다”라고 이유를 밝혔다. 반면 2004년 FTA 발효 이후 가격 경쟁력을 유지해 오면서 인기를 지켜온 칠레산은 현상유지에 그쳤으며 수량 기준으로는 14% 뒷걸음쳤다. 업계에서는 유럽산 와인의 인기 비결로 FTA 체결 이후 15% 관세가 철폐되면서 가격이 하락한 데다 새로운 와인을 맛보려는 소비자가 늘어난 것을 꼽고 있다. 더 불어 유럽산 와인의 강세 이후 경쟁 업체들 또한 가격 하락에 나서면서 국내 소비자들은 FTA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금양인터내셔널이 올해 상반기 와인 판매량 순위(제품별)를 집계한 결과 한국인에게 가장 인기가 많은 와인은 ‘1865 싱글 빈야드 까베르네 소비뇽 2010(칠레)’ ‘1865 싱글 빈야드 까르미네르 2010(칠레)’ ‘간치아 모스 까또 다스띠 2011(이탈리아)’ 순으로 나타났다. 4위는 프랑스 최고 와인 산지인 보르도 메독에서 생산된 ‘노블 메독 2009’, 5위는 미국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생산된 ‘캘로로시 콩코드(1.5리터)’로 집계됐다. 

올 상반기 FTA 체결국 와인 판매 랭킹 7

랭킹	국가명	금액	증감
1위	프랑스	43,255	25%
2위	칠레	26,745	0%
3위	이탈리아	21,433	12%
4위	미국	11,838	7%
5위	스페인	8,880	39%
6위	호주*	7,122	8%
7위	독일	2,593	-2%

출처 : 한국무역협회 (금액 : 1000 US달러, 수량 : 9리터 케이스)

*한·호주 FTA는 현재 협상중임